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고 윤 정

2013년 8월

#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고 윤 정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고윤정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8월

A Research on the Records of Hiking and Climbing  
Halla Mount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Ko, Yoon-Jeo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3.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 론	1
II.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배경	5
1. 한라산 유산기의 내용과 특징	5
2. 한라산 등람배경	8
1) 16·17세기 등람인물	8
2) 18·19세기 등람인물	11
III.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등람관행	14
1. 등람여정과 등람동기	15
1) 인물별 등람여정	15
2) 등람동기	21
2. 등람관행과 마애각 제명	27
1) 동행인 및 숙박처, 이동수단	27
2) 백록담내 마애각 제명	31
IV. 한라산 옛 등람로와 한라산 인식	33
1. 한라산 옛 등람로	33
1) 한라산 서쪽 등람로	35
2) 한라산 북쪽 등람로	38
3) 한라산 동쪽 등람로	40
4) 한라산 남쪽 등람로	41
2. 유산기에 나타난 한라산 인식	43
1) 자연경관 인식	44
2) 역사문화경관 인식	54
V. 결 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70

## 표 목차

<표 1> 한라산 유산기록과 출전	6
<표 2> 유산기 저술자(등람인)의 신분 및 저술목적	7
<표 3> 유산자들의 등람여정	20
<표 4> 등람동기에 따른 인물구분	21
<표 5> 주요 동행인 및 숙박처, 이동수단	30
<표 6> 백록담내에 마애각을 남긴 유산자들	32
<표 7> 출발지(한양)-제주도(한라산) 왕복경로	33
<표 8> 유산자들의 한라산 서쪽 등람로 이동경로	37
<표 9> 유산자들의 한라산 북쪽 등람로 이동경로	39
<표 10> 유산자의 한라산 동쪽 등람로 이동경로	40
<표 11>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역사경관 요소	43

## 그림 목차

<그림 1> 윤제홍의 「漢拏山圖」	12
<그림 2> 백록담을 향한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 등람로	34
<그림 3> 한라산 서쪽 옛 등람로	38
<그림 4> 한라산 북쪽 옛 등람로	39
<그림 5> 한라산 동쪽 옛 등람로	41
<그림 6> 한라산 남쪽 옛 등람로	42
<그림 7> 「大東輿地圖」에 표시한 한라산 옛 등람로	42
<그림 8> 「大東輿地圖」에 나타난 한라산과 혈망봉	49

## 사진 목차

<사진 1> 백록담내 조관빈(좌)과 최익현(우)의 제명	32
--------------------------------	----

## I. 서론

예로부터 한라산은<sup>1)</sup> 鎭山으로 신성시 되어 왔으며, 정상에 백록담에 대해서도 태고의 신비로움을 드러낸다. 옛 지리지 등에 나타난 한라산과 백록담에 대한 지리적 설명을 통해서도 그러한 면은 잘 부각된다.<sup>2)</sup> 이런 연유로 옛사람들은 한라산을 신성시 하면서도 무척이나 동경하여 누구나 한 번쯤 오르고 싶은 산이었다. 때문에 한라산을 의지하였던 제주사람들의 생활기록이나 등산기록은 한라산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조선시대 문인들이 남긴 기록 등이 유일하지만, 당시 한라산 등산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시대의 한라산 登覽에 보이는 역사문화적 접근이라 하겠다.

한라산을 동경해 조선시대 제주도를 방문했던 詩人墨客들과 官吏들이 한라산 등람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가 한라산 遊山記로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이들 중에는 한라산 등람에 대해 직접 글을 지어 기록으로 남기거나 현장에서 돌이나 바위에 새겨 磨崖石刻으로 남기기도 했다. 실례로, 한라산 백록담에는 그 곳을 올랐던 사람들의 이름과 시 구절 등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sup>3)</sup>

본고는 조선시대의 儒者들이 남긴 기록들 중 한라산 遊山記를 대상으로 하여 여행자의 시각에서 한라산 등람을 시도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오른 이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등람관행 및 한라산에 대한 인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遊山記는 본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직접 산을 여행하며 경험한 사건과 사실

- 
- 1) 제주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정상부의 지리좌표는 북위 33° 21' 29", 동경 126° 31' 53", 해발고도는 1,950 미터로서 남한의 최고봉이다. 특히 용암이 갖는 주상절리의 발달과 풍화에 의한 지형적인 특징으로 한라산은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정상에는 산정호수인 백록담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사라오름과 성판악, 서쪽으로는 윗세오름과 불래오름, 남쪽으로는 방아오름, 북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 등 수십 여 개의 오름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이 오름들 사이로 크고 작은 계곡들과 기암 등이 해안까지 뻗쳐 제주도라는 섬을 형성하고 있다.
  - 2) 『世宗實錄』 「地理志」 濟州牧, “鎭山 漢孛在州南 一曰頭無岳 又云圓山 其官行祭 穹隆高大 其巔有大池 ; 新增東國輿地勝覽 山川조, 在州南二十里鎭山 其曰漢孛者 以雲漢可孛引也 一云頭無岳 以峯峯皆平也 一云圓山 以穹窿而圓也 其絕有大池 人喧則雲霧咫尺不辨”
  - 3)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對한 小考」, 『調査研究報告書』 第4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0, 93-111쪽; 오문복 외 공저,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116-128쪽; 강정호 외 공저,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한라산총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24쪽; 고윤정, 「한라산의 마애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13, 227-242쪽.

그리고 그에 관한 議論 등을 기술한 문학작품으로, 첫머리에는 유람목적과 동행인 등을 기록한 후 날짜별로 유람일정과 전문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유산기들은 대부분 16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주도의 한라산 유산기에는 등람인의 사회적 신분과 등람일정, 등람목적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부의 식생과 지형 그리고 출발지에서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인 白鹿潭으로 연결된 등람로 주변의 마을과 寺刹 및 國馬場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 작성된 한라산 유산기에 대한 검토는 한국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조선시대 등람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유용하리라 판단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문헌조사는 한라산 유산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여러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료들을 함께 조사했다. 무엇보다 연구주제가 한라산 등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라산의 옛 등람로를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로를 찾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주지역의 도로 및 골프장 개발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 중산간 지역 이하는 등람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나마 한라산국립공원에 개설된 현재의 탐방로와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의 등람로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유산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청량산 등의 名山에 대한 지리·한문학적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백두산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조선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논의하거나,<sup>4)</sup> 18~19세기에 쓰여진 백두산 기행기록들을 바탕으로 백두산 기행양식과 기행로 등을 분석하면서 기행로를 古地圖 상에 복원한 연구가 있다.<sup>5)</sup> 또한 조선시대에 저술된 20편의 「金剛山遊山記」를 근거로 당시 사대부들의 여행동기와 여정 및 여행관행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6)</sup> 또한 기존연구를 통해 고찰한 금강산 여행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淸涼山의 유산기를 비교하여 청량산 여행

4)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제37권, 민족문화사학회, 2008.

5) 김민정,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의 특성을 제시하였다<sup>7)</sup>. 아울러 「智異山遊山記」를 통해서 지리산 여행자들의 성격, 여행동기, 여정, 그리고 여행방식 등을 분석했다.<sup>8)</sup> 그리고 청량산의 유산기를 통해 영남지식인의 자연인식에 대해 논의하거나,<sup>9)</sup>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 관련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내재된 조선조 유학자의 山水認識을 고찰하거나,<sup>10)</sup> 역사지리학의 입장에서 조선시대 지리산 유산기 10편을 대상으로 여기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승려와 사찰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11)</sup> 그리고 조선시대 경기 일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유산의 대상이 되었던 三角山의 여행구조와 시공간적 특성을 밝힌 연구도 있다.<sup>12)</sup>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名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행관행과 명산을 소재로 쓰여진 문학작품을 분석하면서 산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라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한라산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한라산에 대한 인식이 고지도나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검토하거나,<sup>13)</sup> 한라산의 자연 및 생태, 한라산 주변지역의 문화재의 분포 등을 살펴 제주도민들의 생활문화를 지리학적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으며, 한라산의 사찰 및 수행굴, 동굴유적의 분포 등에 대한 인문지리적 연구가 있다.<sup>14)</sup> 그리고 조선 儒學者의 仙境 인식 중에서도 瀛州山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과 인식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sup>15)</sup> 최근에는 한라산 유산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고려시대 불교사찰로 알려진 尊者庵에 대한 내력 및 移建 등을 고찰한 연구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sup>16)</sup>

특히 윤미란은 총 8편의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를 대상으로 여기에 기록된 등

- 
- 7) 정치영,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 8)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09.
  - 9) 강구울, 「清涼山 遊山記에 나타난 嶺南知識인의 自然認識」, 『영남학』 제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03.
  - 10) 강정화, 「智異山 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山水認識」, 『南冥學研究』 제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원, 2008.
  - 11) 장현아, 「遊山記로 본 朝鮮時代 僧侶와 寺刹」,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2)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 13)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국토지리학회, 2006.
  - 14) 정광중,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06; 정광중 외,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33집, 제주교육대학교, 2004.
  - 15) 김치완, 「瀛州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 『大同哲學』 제59집, 대동철학회, 2012.
  - 16)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2011;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考」, 『대각사상』 제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송문기,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권에 대한 문헌적 고찰」, 『탐라문화』 제41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2.

람자들의 한라산 山水遊觀과 한라산의 구비전승에 대한 내력을 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했다.<sup>17)</sup> 이 연구는 한라산의 유산기를 최초로 학술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관리들과 유배 왔던 儒學者들이 한라산을 등람하여 남긴 한라산 유산기록 13편을 분석하여 우선 등람자의 사회적 신분과 등람목적, 조선시대의 한라산 옛 등람로를 밝히며, 등람과정에서 관찰한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경관과 마을, 목장 등 인문경관을 제시함으로써 200~300년 전의 제주도와 한라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조선시대 한라산 遊山記의 내용과 특징을 밝히고, 시기별 등람인물의 검토를 통하여 유산자들의 등람배경 및 활동내용 그리고 각 유산기의 作者와 저술동기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등람관행과 비교하여 한라산의 등람관행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물별 등람여정을 바탕으로 한라산 등람관행에 대해 산을 오르게 된 동기, 동행인 및 숙박처, 교통수단 등을 고찰했다. 그리고 등람과정에서 행해진 백록담 분화구내 마애각 제명 관행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Ⅳ장에서는 조선시대 옛 등람로의 노선에 대한 추적을 현재의 한라산 등람로와 비교하여 복원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한라산에 있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중심으로 유산자들이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백록담,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혈망봉 등 한라산의 자연경관에 대한 인식을 고찰했으며, 제주삼읍의 배치, 노인성과 망암, 불교유적과 승려, 한라산신제와 기우제, 칠성대 등 한라산의 역사문화유적경관에 대해 정리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이들의 경험과 여정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첫째, 제주도에 입도했던 당대 지식인들의 한라산 인식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둘째, 유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라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의 고찰을 통하여 조선시대 한라산의 옛 地名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17)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Ⅱ.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배경

### 1. 한라산 유산기의 내용과 특징

조선시대 遊山記들은 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으로 대부분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遊山風潮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후반에 급격히 성행하기 시작해 18세기에는 일반인에게 까지 널리 유행하였다.<sup>18)</sup>

한라산 유산기록은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대부분 제주도에 들어온 외지인들이 남긴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총 13편의 한라산 遊山記錄 중 단 1편만이 제주도착인에 의해 쓰여졌다. 이러한 한라산 유산기들은 직접 한라산 정상을 올랐던 결과를 기록한 기행문이자 사실성이 뛰어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인들의 신분과 등람관행 나아가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라산을 오른 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金緻(1601)·趙觀彬(1732)·李源祚(1841)·崔益鉉(1875)의 「遊漢拏山記」라는 제목의 유산기 4편을 포함하여, 林悌(1578)의 「南溟小乘」, 李益泰(1694)의 『知瀛錄』, 金羲正(1895)의 「漢拏山記」 같은 개인 일기체 형식의 한라산 등람 기행문 3편, 金尙憲(1601)의 『南槎錄』과 李增(1680)의 『南槎日錄』, 金聲久(1680)의 『南遷錄』, 李海朝(1707)의 「登漢拏山」과 같은 公務日記 형식의 기행문 4편, 李衡祥(1702)의 「南宦博物」과 같이 지방지에 삽입된 地誌속의 遊山記와 尹濟弘(1825)의 「漢拏山圖」 같이 그림에 적혀진 한라산 등산기록 등 총 13편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유산기 작성 고유방식으로 기록된 작품은 김치와 조관빈, 이원조, 최익현의 「遊漢拏山記」와 김희정의 「漢拏山記」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 논문에서 연구대

18) 김치완,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인식과 그 태도」, 『大同哲學』 제59집, 大同哲學會, 2012, 137쪽.  
19) 윤미란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기 고유의 양식으로 작성된 한라산 유산기록을 「遊漢拏山記」로 지정하고 있는데, 「遊漢拏山記」에 나타난 유산기의 구성방식은 유람준비 →유람실행 →유람결과에 대한 총평 순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윤미란, 앞의 논문, 2008, 19-20쪽).

상으로 삼은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를 <표 1>에 제시하였다.<sup>20)</sup>

<표 1> 한라산 유산기록과 출전

시 기	저자명	등람연도	기록명	출전
16세기 <sup>21)</sup>	林悌	1578	「南溟小乘」	『白湖先生文集』
17세기	金尙憲	1601	「南槎錄」	『淸陰全集』
	金緻	1609	「遊漢拏山記」	『耽羅志草本』(李源祚)
	李增	1680	『南槎日錄』	좌동
	金聲久	1680	『南遷錄』	좌동
	李益泰	1694	『知瀛錄』	좌동
18세기	李衡祥	1702	『南宦博物』	『瓶窩先生文集』
	李海朝	1707	「登漢拏山」	『鳴巖集』 권3
	趙觀彬	1732	「遊漢拏山記」	『晦軒集』 권15
19세기	尹濟弘	1825	「漢拏山圖」	『學山九九翁』 화첩
	李源祚	1841	「遊漢拏山記」	『耽羅錄』 권4
	崔益鉉	1875	「遊漢拏山記」	『勉庵先生文集』
	金義正	1895	「漢拏山記」	『海隱先生文集』

20) 구한말 한라산에 올랐던 기록도 2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기록은 20세기 초의 기록이면서 조선인이 아닌 외국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 1901(『제주도사 연구』 제3집, 1994 수록; 이치가와 상키(市河三喜), 「漢拏山行」 20C 초(제주산악회, 『漢拏山』 통권 제10호, 1984 수록). 지그프리트 겐테는 독일의 지리학자로 중국을 경유하여 1901년에 한국에 도착하여 제주도의 한라산 답사를 갈망하다가 당시 제주를 다녀갔던 왕실 고문인 미국인 센즈(Sends)를 만나 미리 제주도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은 후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에 와서 한라산을 올랐다. 한라산 영실기암 주변으로 백록담 정상을 올랐는데, 외국인으로서의 첫 한라산 등반기록인 셈이다. 그는 한라산의 높이 측정을 위하여 산행을 하였으며, 또한 한라산 높이가 해발 1950 미터임을 밝힌 최초의 학자로 전해진다. 원문은 켈른신문에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번역명)」로 1901년 10월 13일부터 1902년 11월 30일까지 연재되었다. 이치가와 상키는 일본인 대학생으로 19세 때 미국인 앤더슨과 제주도에 입도하여 한라산을 올랐다. 그가 본도에서 채집한 곤충과 식물표본이 당시 식물학회지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는 1905년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40여 일 동안이나 한라산의 북쪽 자락인 능화동에서 체류하면서 한라산 북쪽사면을 조사하거나 백록담을 올랐는데, 아마도 곤충채집과 식물조사의 목적이 아닌가 여겨진다.

21) 16세기의 제주도 관련 기록 중 1522년 『沖菴先生集』 권4에 수록된 沖菴 金淨(1496~1521)의 「濟州風土錄」에서도 한라산에 직접 올라야만 감상할 수 있는 백록담 경관의 세세한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김정이 유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을 한 달에 한 번 올랐다는 기록이 桐溪 鄭蘊과 良翁 李瀆의 기록에서도 전하고 있으나, 「濟州風土錄」은 순수한 한라산 유산기록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金淨, 「濟州風土錄」: 「山峯之頂 必凹如鑊 陷成泥濼 峯峯皆然 故謂之頭無岳」; 鄭蘊, 「桐溪集」: 「或譏之曰 金沖菴謫居 每月一登漢拏」; 李瀆, 「良翁遺稿」: 「先正沖菴公 在園中時時往此山 而曰 國法之故不得長在山中 但一月一出云云 而吾輩一入累年不得跬步之出 公之得禍不下 今日猶得時往山中 暢敘幽鬱 而吾輩猶縮首不敢出者 時有古今之異 而勢有所不敢也 豈吾輩之守正有 加於先正者哉 余夏間得病死 而甦尤覺鬱鬱 而適受 恩點方在納續之類 雖家貧不能報答聖恩 而與昔者有間焉 猶不能唐突以駭瞻視與同志二三子冒曉 而往越一夜而昏返焉 後或有見之者 亦將寬恕云 爾出門避塵囂望山新面目歸雲 亦有知使我藏踪跡」)

한라산 登覽人들의 신분을 보면 김상헌, 김치, 이증, 김성구, 이익태, 이형상, 이해조, 윤제홍, 이원조 등은 제주목사(안무어사)와 같은 현직 관리들이었다. 반면 1895년에 「漢拏山記」를 쓴 김희정은 제주의 文人이며, 임제는 유람자 신분, 조관빈, 최익현 등은 당시 제주에 유배를 와서 解配되어 제주를 떠나기 직전의 인물이었다.<sup>22)</sup>

대부분 개인 유람기 형태로 한라산 등람을 기록하고 있으나, 목민관으로서의 행정의 기록에 충실하는 모습도 여러 편에서 확인되고 있다. 임제, 김치, 이익태, 조관빈, 윤제홍, 이원조, 최익현, 김희정 역시 개인 유람기 형태로 기록하고 있으며, 김상헌, 이증, 김성구, 이형상 등이 목민관으로서의 업무기록에 충실하고 있다.

이들이 한라산을 등람할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김상헌, 김치, 임제 등 3명, 40대가 김성구, 이해조, 조관빈, 최익현 등 4명, 50대는 이증, 이형상, 이원조, 김희정 등 4명, 60대는 이익태와 윤제홍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언급한 한라산 등람인들의 신분과 유산기록 형태, 연령별로 나누어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유산기 저술자(등람인)의 신분 및 저술목적

구분	성명	신분	유산기 기록형태	당시연령
현직관리	김상헌	안무어사	목민관으로서의 행정기록	32
	김치	제주관관	개인기록, 유람기	33
	이증	제주안핵겸순무어사	목민관으로서의 행정기록	53
	김성구	정의현감	"	40
	이익태	제주목사	개인기록, 유람기	62
	이형상	제주목사	목민관으로서의 행정기록	50
	이해조	시재순무어사	"	48
	윤제홍	제주경차관	개인기록, 그림으로 남김	62
	이원조	제주목사	개인기록, 유람기	50
유배인	조관빈	유배인(해배)	개인기록, 유람기	42
	최익현	유배인(해배)	"	43
여행자	임제	여행자	"	30
	김희정	제주문인	"	52

22) 유배인 신분인면서 그 당시 한라산에 어떻게 오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조관빈과 최익현은 출륙허가를 받고 나서야 산을 오르는 모습을 유산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趙觀彬, 「遊漢拏山記」: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 최익현, 「遊漢拏山記」: “乙亥春 適以特恩出棘 遂定尋眞計”)

## 2. 한라산 등람배경

한라산 유산기를 쓴 등람자들은 어떤 동기로 제주도에 入島해 한라산을 올랐을까? 이들은 대체로 제주목사나 관관, 안찰사 등 관리로 임명되어 입도한 경우, 士禍에 연루되어 내려진 유배조치에 따라 유배인 신분으로 입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자들의 등람배경에 대하여 제주도 입도계기, 입도 후 활동 등을 시기별로 구분해 검토해 보았다.

### 1) 16·17세기 등람인물

16세기에 한라산을 등람하여 유산기록을 남긴 인물은 林悌가 대표적이며, 17세기에 한라산을 등람하여 유산기록을 남긴 인물로는 金尙憲, 金緻, 李增, 金聲久, 李益泰가 있다.

林悌<sup>23)</sup>는 1577년 과거에 급제한 뒤, 제주 목사로 있는 부친 林晉(1577~1579 재임)에게 과거합격 소식을 전하기 위해 1577년 11월 9일 제주도의 朝天館으로 입도했다. 그런 다음 제주섬 안의 모습과 제주 풍물을 관광하면서 일기체 기행문 「南溟小乘」을 썼다. 1577년 11월 3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여정인데, 제주에서 景勝地들을 두루 구경하고 한라산을 오른 뒤 이듬해 3월 3일에 돌아갔다. 그는 체류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경승들을 두루 구경한 다음 한라산 등람을 결행했다. 그의 「南溟小乘」의 한라산 기록은 그 이후 한라산을 오르는 사대부들에게 안내서 역할을 했다. 이 책은 문인에 의해 씌어진 ‘遊山記’ 형식을 띤 최초의 한라산 정상 등반기라 할 수 있다.<sup>24)</sup> 임제의 작품들은 1617년 『林白湖集』으로 初刊되었으며, 1958년 석인본으로 간행된 『白湖先生文集』의 별책 부록에 「南溟小乘」이 수록되어 있다. 임제는 1578년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한라산에서 머물다가 하산하였다.

金尙憲<sup>25)</sup>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1년(선조 34)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蘇德裕·吉

23) 林悌(1549~1587)는 조선 선조 때의 문인으로서, 본관은 나주이며 자는 자순, 호는 백호이다.

24) 윤미란, 앞의 논문, 2008, 8쪽.

云節 逆謀事件<sup>26)</sup>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주민심을 위무하기 위해 동년 9월에 濟州按撫御使로 임명되어 입도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사건처리와 함께 한라산 산신제를 지냈다. 이 산신제는 본래 耽羅國 때부터 비롯되었으며, 탐라국이 해체된 고려 숙종 10년(1105) 이후에도 한라산 정상 북벽에서 이루어졌으나, 조선조 성종 원년(1470)부터는 제주목사 李約東(1416~1493)에 의해 한라산신제 장소가 한라산 정상에서 山川壇으로 옮겨졌다. 한라산 정상에서 산신제를 거행하면서 제주도민들이 凍死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다. 1601년(선조 34)에 제주안무어사 김상헌은 선조의 명을 받아 한라산신제를 거행하여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으로 동요하던 제주도 민심을 진정시키려 했다.<sup>27)</sup> 한라산 등산은 1601년 9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제주에 체류하면서 얻은 제주의 풍물, 형승, 진상, 군역 등 제주의 사회상에 대한 정보를 모아 『南槎錄』을 지었다.

金繼<sup>28)</sup>는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으로 재임 중 1609년(광해군 1) 3월 제주판관에 임명되어 입도했으며, 이듬해인 1610년 9월에 떠났다. 재임 중에는 여러 가지 민폐를 개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 간행한 『臥遊錄』에 실린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제주판관 김치는 1609년 4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라산을 등람했음을 보여준다.

李增<sup>29)</sup>은 1679년 제주목사 최관이 전목사 윤창형(1676~1678 재임)과 정의현감 상인침(1675~1678 재임)의 비행을 치계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임명되어 입도했다. 어사 이증은 1679년 10월 27일 한양을 떠나 11월 23일 전라도 강진을 거쳐 12월 7일 화북포로 제주에 도착하였다. 제주에 와서 보니 1680년 3월 4일 목사 최관이 병환으로 체임되게 되었다. 이에 제주의 민심을 위

25) 金尙憲(1570~1652)은 조선 인조대에서 효종대의 相臣으로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숙도, 호는 청음이다. 제주 五賢의 한 사람이다.

26) 고성훈, 「1601년 제주도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史學研究』 제96호, 한국사학회, 2009, 155-157쪽. 이 사건은 '육지사람'인 길운절과 소덕유가 제주도에서 거사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소덕유는 1589년 정여립을 비롯한 동인의 인물들이 모반 혐의로 박해를 받은 사건인 己丑獄事와 관련된 인물이다. 1601년 6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제주목사와 서울에서 온 관료들을 사살하고 제주성을 점령한 다음 군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직항한다는 계획 아래 거사를 준비했으나 길운절의 고변으로 거사준비 작업은 역모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사건에는 堂上官의 고관으로 제주에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文忠基를 비롯한 일부 제주인들도 참여했다. 제주인들은 제주목사의 탐학을 제거하고 과중한 軍役과 徭役, 조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해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 거사에 참여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27) 아리1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라산신제의 원형발굴과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010, 112-114쪽.

28) 金繼(1577~1625)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사정, 호는 남봉, 심곡이다.

29) 李增(1628~1686)은 讓寧大君의 8세손으로 完原君의 아들이다. 1662년에 생진과에 급제하고, 1677년에 다시 증광별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로하기 위해 과거를 보게 하여 제주선비를 뽑기도 하였다. 『南槎日錄』은 제주에 임명된 후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가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에 해당한다. 『南槎日錄』에는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제문이 실려 있고, 한라산 백록담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있다. 한라산신제의 祭日이 1680년 3월 6일이어서 전날인 3월 5일 한라산에 올라갈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3월 19일에야 산행에 나서서 이틀간 한라산을 등람하였다. 이증은 1680년 4월 초4일 제주도를 떠났으니 제주 체류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金聲久<sup>30)</sup>는 1662년 司馬試<sup>31)</sup>를 거쳐 1669년 式年試<sup>32)</sup>에 甲科로 급제하였으나, 1679년 장령 재직시 南人이 서인세력(특히 송시열)과 북벌문제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에서 淸南(강경과)과 濁南(온건과)으로 나누어지면서 탄핵되어 좌천되게 되었다. 1679년(숙종 5) 7월 이만지의 후임으로 제주목 정의현감으로 도입하였고, 1681년 10월에 임기를 마치고 제주도를 떠났다. 그가 남긴 『南遷錄』은 1679년 정의현감 재임 시에 저술한 일기체 형식의 문헌이다. 정의현감 재직시 이증과 함께 한라산신제의 제관을 맡아 1680년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한라산을 올랐던 일정이 수록되어 있다.

李益泰<sup>33)</sup>는 1694년(숙종 20) 7월 이기하의 후임으로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입도했다. 1696년 9월에 교체되어 떠나기 전까지 演武亭과 運籌堂을 중창했으며, 그가 남긴 『知瀛錄』은 제주목사를 제수 받고 부임해 온 후 제주에서의 여정을 수록한 문집이다. 이 사료에는 제주도 순력기록, 진공과정, 사당중수문, 제주역사, 제주도 풍경과 산촌모습 등이 기록되고 있다. 특히 『知瀛錄』에는 1694년 8월 16일과 17일, 다음해인 1695년 8월 19일 한라산을 오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1694년의 기록을 분석했다.<sup>34)</sup>

30) 金聲久(1641~1707)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의성, 자는 덕휴, 호는 팔오현이다.

31) 生員과 進士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을 말한다.

32)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으로, 60갑자 가운데 子·卯·午·酉가 드는 해에 정기적으로 치른 科擧 시험이다.

33) 李益泰(1633~1704)는 조선조 숙종때 제주목사를 역임한 인물로서 호는 야계이다.

34) 1695년의 한라산 등산기록에는, 이익태가 지난해(1694년)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을 떠올려 보고 산을 오르 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길을 나섰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백록담에 오르지 못하고 등산로의 초입부분에서 되돌아온 아쉬운 마음을 적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한라산을 등람한 기록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18·19세기 등람 인물

18세기에 한라산을 등람하여 유산기록을 남긴 인물로는 李衡祥, 李海朝, 趙觀彬이 대표적이며, 19세기에 한라산을 등람하여 유산기록을 남긴 인물로는 尹濟弘, 李源祚, 崔益鉉, 金羲正이 있다.

李衡祥<sup>35)</sup>은 1702년(숙종 28) 6월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재임 중에는 제주도 의陋俗을 儒俗으로 바꾸려 했다. 즉 釋奠祭를 행하던 三邑의 성묘를 수리하고 이를 높은 선비로 선생을 정하여 글을 가르치게 하였고, 고을나와 양을나, 부을나 삼성의 사당을 세우고 동성혼인 등의 음란한 풍속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남부에 있었던 漢拏護國神祠인 廣靜堂에서 지방민들이 기도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금지시켰다. 무엇보다 이형상은 畫工 金南吉을 시켜 자신의 순력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耽羅巡歷圖」를 완성하게 했다. 또한 제주에 관한 지방지라 할 수 있는 『南宦博物』을 1704년 저술했는데, 제주도 및 그 주변 도서의 자연과 역사, 산물, 풍속, 방어 등에 대한 기록으로 13,850여자에 달한다. 그 『남환박물』의 地誌편에 의하면 1702년 3월 25일에 이형상이 한라산을 올랐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李海朝<sup>36)</sup>는 1681년 司馬試에 합격했으나, 1689년 仁顯王后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왕후가 복위된 뒤에 氷庫別檢이 되었다. 1702년 謁聖文科<sup>37)</sup> 시험에서 병과로 급제했으며, 大提學을 역임한 후 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1706년 9월 과거시험을 감독하는 試才御使로 제주에 온 후 예문제학 최석항이 시권을 과차하여 정창원, 고만첨, 오정빈 등 3인을 급제시키고 다음해에 상경하였다. 한라산을 오른 기록인 「登漢拏山」이 자신의 문집인 『鳴巖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산을 오른 날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공무를 마치고 상경하는 1707년 봄<sup>38)</sup>에 한라산을 오른 듯하다.

趙觀彬<sup>39)</sup>은 1714년 增廣文科<sup>40)</sup>에서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731년 大司憲으로

35) 李衡祥(1653~1733)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전주, 자는 중옥, 호는 병와이다. 1680년(숙종 6) 문과에 급제하였다.

36) 李海朝(1660~1711)는 조선후기의 학자이며 본관은 연안, 자는 자동, 호는 명암이다.

37) 조선 시대 임금이 성균관의 문묘에 참배한 뒤 보던 문과시험이다.

38) 李海朝, 「登漢拏山」: “堇鋪地 有草蔓生 鞵鞞石上”

39) 趙觀彬(1691~1757)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양주, 자는 국보, 호는 회현이다.

있으면서 소론의 영수인 李光佐(1674~1740) 탄핵 건에 연루되어 제주 대정현에 유배된 인물이다. 1731년 11월 20일 한양을 출발하여 10여 일만에 충청남도 당진에 도착, 기상악화로 15일간이나 머물다가 1731년 12월 27일에야 화북포를 거쳐 입도하였다. 그의 적거처는 대정읍성 북문 밖 촌가였으며,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중에 남긴 그의 문집 『晦軒集』에는 탐라의 위치와 신화, 역사, 유배지의 환경과 오현사, 탐라의 생활과 풍속, 진상품, 유배생활에 대한 정감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듬해인 1732년 2월 21일에 출륙허가가 내려져 6월 9일에 放還되었는데, 1732년 4월 1일의 한라산 등람기록인 「遊漢拏山記」가 『晦軒集』 제15권에 수록되어 있다.

尹濟弘<sup>41)</sup>은 1825년(순조 25) 2월 제주에 敬差官으로 부임해 온 인물로서 제주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을 더듬어 1844년에 「漢拏山圖」라는 指頭畫<sup>42)</sup>를 그렸으며, 그 「漢拏山圖」내에 한라산 등람여정을 기록<sup>43)</sup>해 놓았다. 이 그림은 자신의 화첩인 『學山九九翁』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라산을 오르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분화구 남쪽에서 바라본 백록담 분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암벽의 형상과 백록담 못의 모습까지 묘사하여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그림 1).

李源祚<sup>44)</sup>는 1841년(헌종 7) 강릉부사로 있다가 1841년 3월 제주목사로 승



<그림 1> 윤제홍의 「漢拏山圖」

40)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기념으로 보이던 과거시험이다.  
 41) 尹濟弘(1764~?)은 179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79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인화가로서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학산이다.  
 42) 붓을 사용하는 대신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윤제홍의 유작 중에는 높은 화격을 보여 주는 작품들이 전해지며 특히 지두화에 능하여 여러 폭의 지두화첩을 남겼다.  
 43) 글을 써 내려간 방식이 우상향에서 좌로 쓰다가 다시 좌하에서 오른쪽으로 기록하고 다시 밑으로 좌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청나라 화가들과 19세기 조선의 김정희 등이 사용한 방식이다.  
 44) 李源祚(1792~1871)는 본관은 성산이고 李亨鎭의 아들이다. 그러나 백부 李奎鎭의 밑으로 입양되었다. 자는 주현이고 호는 응와이다.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2년(순조 12)에 관직에 나갔다.

진하여 구재룡의 후임으로 도입하여 1843년(헌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일생에 문집 26권을 남겼는데 이를 『凝窩集』이라고 했다.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편술한 것으로는 『耽羅錄』,과 『耽羅誌草本』, 『耽羅關報錄』 등이 있다. 그가 목사로 재임하던 1841년 그의 저서인 『耽羅錄』에는 목사로 부임한 후 5개월 후인 1841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한라산 등산 기록이 있다.

崔益鉉<sup>45)</sup>은 1873년(고종 10) 興宣大院君의 실정을 탄핵하여 대원군을 실각하게 하고, 자신은 제주로 유배되어 1년 4개월간 제주목에 圍籬安置되었다. 그러나 본토 친지들과의 서신왕래, 제주지리에 익숙할 정도로 나들이가 가능해 그의 유배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배기간 동안 최익현은 안달삼, 김희정, 강기석, 김용징, 김치용, 김양수, 김훈 등 濟州文士들과도 교류했는데, 특히 金羲正과는 사제관계를 맺기도 했다.<sup>46)</sup> 1875년 유배에서 방면되자 한라산을 등람하고 5월에 기행문 「遊漢拏山記」를 지었다. 『勉菴先生文集』에 실려 있는 이 글은 한라산의 경치뿐만 아니라 작가의 묘사도 훌륭하여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적도 있다. 1875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친 한라산 등람의 기록이 「遊漢拏山記」에 수록되어 있다.

金羲正<sup>47)</sup>은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학식이 높고 시를 잘 지었으며 참봉벼슬을 거쳤다. 매계 이한진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1873년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최익현의 謫所에 자주 왕래하기도 한 최익현의 문하생이기도 하였다. 1887년 향시에 합격하고 1890년(고종 27) 참봉 벼슬을 지냈는데, 같은 마을의 난곡 김양수와 구별하기 위해 작은 참봉이라고 일컬어졌다. 조천에 은거하며 평생 후학양성에 힘썼는데 찾아와 배우는 문하생이 많았다고 한다. 1895년 봄 단오날부터 3일간 이루어진 한라산 등람기록인 「漢拏山記」<sup>48)</sup>가 그의 문집 『海隱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45) 崔益鉉(1833~1906)은 조선조 말기의 애국지사로서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 호는 면암이다. 경기도 포천 출신이며 崔岱의 아들이다.

46) 김인기, 「조선 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49쪽.

47) 金羲正(1844~1925)은 조선말기 제주출신 한학자이며, 자는 우경, 호는 해은, 본관은 김해이다. 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인물이다.

48) 제주출신의 한라산 등람 기록으로서 유일하게 한라산 동쪽 등람로를 오른 인물의 기록이다.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여겨 본고의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 Ⅲ.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등람관행

제Ⅲ장에서는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등람관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오르기를 선호했던 金剛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등람관행을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라산 유산기를 남긴 인물들 역시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사대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지부 명산에 대한 등람관행이 제주지역 한라산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등람관행에 대해 사대부들이 등람을 선호했던 金剛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등람관행에 대해서는 정치영의 연구<sup>49)</sup>가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첫째, 금강산 등람자들은 外官職에 있던 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으며 불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쫓기하거나 靑과의 和議를 끝내 거부하거나 당쟁에 희생되어 유배생활을 하던 이들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금강산 등람동기는 대체로 산수감상, 심신수련, 역사문화유산 체험에 있었다. 셋째, 사대부들은 금강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강산 遊山記나 여행경험자로부터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여행비용과 준비물<sup>50)</sup>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떠나는 인사를 했으며, 여행 중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여행경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넷째, 등람 동행인들은 대부분 친구와 가족이었으며, 樂工과 남자종을 동행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여정 중간에 합류하는 동행인으로는 금강산 인근에 근무하는 지방관리 그리고 안내자와 가마꾼 역할을 했던 僧侶가 있었다. 다섯째, 금강산 여행시기는 늦봄에서 초여름, 가을 등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여행 중 이용했던 교통수단으로는 往復路에서는 말, 금강산 내에서는 가마(藍輿)를 이용했다. 여섯째, 금강산 산행 중 숙박장소를 보면, 금강산 왕복로상에서는 민가(친지집), 지방관아(객사), 역, 사찰 등을 그리고 금강산에서 체류할 동안에는 사찰을 이용했다.<sup>51)</sup>

49)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50) 준비물로는 돈과 쌀, 부식 등 식량, 타고 갈 말, 여행안내서로 사용할 선인들의 유산기, 중간에 읽을 서적, 詩作과 여행기록에 필요한 종이와 문방구 등이 있었다(정치영, 앞의 논문, 2003, 28쪽).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금강산 등람관행을 토대로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등람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인물별 등람여정과 등람동기, 동행인 및 숙박처, 이동수단 등을 검토하고 백록담내 마애각 제명관행을 고찰해 보았다.

## 1. 등람여정과 등람동기

### 1) 인물별 등람여정

조선시대 제주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한라산 등람계획은 여러 가지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그 첫 과정은 한라산에 대한 여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라산을 올랐던 사람들이 남긴 한라산 유산기록과 한라산에 대한 기후와 식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알아보거나 제주지방 사람들에게 물어서 한라산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漢拏山神祭를 치르기 위한 공무수행 차원에서의 산행은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한라산을 오르는 경우여서 한라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한 걱정도 유산기록에 보이고 있다.

유산자들이 한라산을 오른 시기를 살펴보면 봄철(3~5월)이 8건, 여름철(7, 8월)이 2건, 가을철(9월)이 2건 그리고 겨울철(2월)이 1건으로 나타났는데 봄철 눈이 녹은 다음 등람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林悌는 겨울인 2월에 한라산을 올라 추위와 싸우며 산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578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6박 7일간의 한라산 일정 중에서 영실 존자암에서 5일을 머물고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보통 한라산제를 지내려는 관인들의 하루 일정이나 1박2일 일정에 비하면 꽤 긴 시간을 한라산에서 보냈다. 신선이 산다는 한라산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간직하고 있다가 산에 눈이 녹기를 기다려 山尺(‘산장이’)의 소식을 접하고 한라산 등람을 감행하게 되는데, 유배 온 申長峯과 친구 柳廷傑, 감사 金禮英과 함께 한라산에 올랐다. 첫날은 都

51) 정치영, 앞의 논문, 2003, 31-32쪽.

近川<sup>52)</sup> 상류에서 잠시 쉰 후 서남쪽 등람로를 따라 오르다가 30여 리를 더 올라서 영실의 尊者庵에 도착했다. 존자암에서 5일 밤을 보내면서 존자암 승려 청순 스님과 한라산 靈谷(영실기암)과 老人星<sup>53)</sup>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존자암에서 며칠 기거하게 된 이유는 한라산의 비 날씨로 악천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상악화는 한라산이 그만큼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며칠 후 날씨가 맑아지자 존자암을 출발해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도착했다. 임제는 백록담의 절경에 감탄하여 “속세의 풍광은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고, 난새 통소 소리를 듣는 듯 하고 지초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하산길은 백록담을 돌아 남벽으로 내려와서 남쪽 방향으로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현재 서귀포시 상호동 일원으로 추측되는 頭陀寺에 머물게 된다. 두타사에서 1박을 한 후 서귀포 방향으로 하산한 다음 제주성으로 돌아왔다. 그의 등람여정은 제주목을 출발해 영실 존자암에서 일시 체류한 후 백록담을 오른 다음 두타사가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 다시 제주목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金尙憲은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하여 산을 오르게 되는데, 제주관관을 비롯한 제주성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다. 산신제 제물을 준비한 다음, 제주성 남문을 출발해 한라산 서남쪽 등람로를 따라 오르다가 존자암에 도착했다. 존자암을 거쳐 영곡이라고 하는 千佛峯을 구경하고, 천불봉에서 수행굴을 지나 다시 골짜기를 올라 칠성대와 좌선암을 지났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날이 이미 저물어 백록담에 오르지 못하고 분화구 외벽 밑에서 장막을 치고 노숙을 하였다. 다음날 한라산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하산하였다. 김상헌의 유산기록에는 백록담 정상에서 내려다본 바다의 섬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백록담 암벽의 성질 및 못의 깊이에 대해서도 임제의 기록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적고 있다. 그리고 제주인의 생활상과 풍속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목림과 낙엽활엽수림대 등 식생의 분포대를 관찰한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백록담의 형태와 물의 깊이에 대

52) 도근천은 제주 서쪽 18리에 있으며, 일명 水精川 또는 朝貢川이라고도 하는데 지방 사람들의 말이 난삽하여 都近은 곧 朝貢이란 말의 그릇된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濟州牧 山川條).

53) 연노랑 빛깔의 노인성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밝은 별이다. 고구려벽화 등에서도 가장 큰 별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별을 보면 무병장수 한다고 한다(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 71쪽).

해서 임제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임제는 백록담의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산위의 돌들은 모두 赤黑色이며 돌을 물에 담그면 뜬다고 했는데, 김상헌은 한라산 정상 이 흑빛갈이였으며, 백록담의 깊이가 얇은 곳은 종아리 정도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만 빠지며, 돌이 물에 뜨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金繼는 ‘瀛洲山’이라는 한라산의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는 濟州判官으로 도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응생, 이효성, 정인수 등과 함께 한라산에 오르게 된다. 제주성에서 말을 타고 출발해 무수천 상류로 올라 대정현 지경의 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서 노루악과 삼장동(삼형제오름)을 거쳐 한라산 서쪽 등담로를 이용했다. 포애악(불래오름)을 넘어 남쪽을 돌아 존자암에 도착하였다. 불래오름의 존자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승려 수정과 함께 영실기암 주변의 옛 존자암 자리를 찾아갔다. 존자암의 옛터를 살펴보고 난 후 수행굴을 지나 골짜기를 올라서 칠성대를 거쳐서 백록담 정상에 올랐다. 김치는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여러 섬들을 자세히 나열해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보았다는 노인성에 대해 수정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노인성을 관찰할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대정현 지경인 서쪽으로 올랐지만 하산은 제주성 방면인 북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海上의 신기루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濟州城을 구경했다.

李增과 金聲久는 한라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하여 제관으로 선정된 제주판관 강성좌, 대정현감 이당, 교수 정유설, 문영후, 김계룡, 김계창, 고득중 등과 함께 한라산을 올랐다. 제주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연무정, 병문천, 한천을 지나 용생굴에서 조반을 먹었다. 무수천을 따라 올라가다 대정현 지경 서쪽 등담로의 굽이굽이 좁은 길을 따라 올라 존자암에 도착하였다. 존자암에서 점심을 먹고, 영곡을 지나 칠성대와 좌선암을 거쳤다. 이증의 기록에는 없지만 김성구의 기록에는 영곡과 칠성대, 좌선암을 거쳐 외구음불<sup>54)</sup>을 지나서 정상 바로 밑까지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해질 무렵에 정상에 도착하여 야영을 한 후 새벽에 산신제를 거행하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이증은 다시 서쪽방향으로, 정의현감인 김성구는 정의현 방향인 동남쪽 방향으로 하산했다. 김성구는 백록담의 경사가 급한 동남쪽 사면

54) 강정효는 ‘外求音佛’의 위치는 영실 동쪽 능선으로써, 선작지왓 남쪽의 급경사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 29, 제민일보, 2013).

을 따라 내려서 효돈천 상류 계곡에서 점심을 먹고 衣貴院으로 내려와서 말을 쉬게 하고 정의현으로 돌아왔다.

李益泰는 판관 노삼석과 그의 종제 석릉, 정의현감 신명백, 권영림의 아들 등과 함께 한라산을 올랐다. 제주성을 출발하여 한라산 북쪽으로 올라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서 잠을 자며 해와 달뜨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구름과 안개가 가려버려 시원하게 볼 수 없음을 한탄했다. 정상에서 1박을 하고 남벽 골짜기를 따라 서남쪽 ‘선작지왓’에 이르게 되고, 대정현감 반처럼과 합류해 영실기암으로 내려와 존자암의 옛 절터를 둘러보고 하산했다. 이익태는 다음해인 1695년 8월에도 한라산 정상을 가보고 싶어서 용생굴을 거쳐 등산을 시도하였으나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어 포기하고 방선문<sup>55)</sup> 계곡에서 노닐다 돌아오기도 하였다.

李衡祥은 제주목사로 부임해 온 후 제주섬을 돌면서 화공 김남길을 시켜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상을 「탐라순력도」에 그려 넣게 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의 문물에 대해서는 박물관인 『南宦博物』에 기록해 놓고 있다. 특히 이 책의 ‘誌地’ 편은 이형상이 한라산을 유람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이 부분에는 1702년 4월 15일 당일 등람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형상 제주목사는 제주성을 출발해 한라산 북쪽으로 올라 정상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정상의 穴望峰과 마주하여 앉아 제주 삼읍을 내려다보거나 백록담 내에 분포하는 식물상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백록담 흙색깔이 검붉은 것은 백록담이 極寒과 極烈로 인해 구름이 증발하고 안개가 끊어서 土脈이 성질을 잃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李海朝 역시 당일일정으로 한라산 북쪽으로 정상에 올랐다. 백록담 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기우제단에서 제를 올린 다음, 혈망봉과 넓은 바다를 돌아보다가 하산했다. 몇 년 전에 산을 오른 이형상과는 달리 백록담 남벽으로 내려와서 서쪽 등람로의 존자암 옛터를 지나 제주성으로 돌아왔다. 동행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趙觀彬이 산을 오른 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배적거지가 대정현에

55) 노재현·신상섭, 「제주 방선문의 선경적 이미지와 명승적 가치」, 『한국조경학회지』 38권(1), 2010, 105쪽 : 방선문은 제주시 오라동 한천에 위치하는 계곡으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 즉, 한라산에 들어가는 통로에 해당된다. 이곳은 제주도의 영주십경 중 제3경인 ‘영구춘화’의 對象場으로, 자연풍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경관요소가 다양하게 함축된 명승지에 해당된다.



있어서 아마도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한 듯하다. 대정현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 영실과 칠성대, 좌선암, 선작지왓을 지나 백록담 남벽을 올라 정상에 이르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에서 멀리 바다에 뜬 여러 섬나라들을 관망했으며 백록담내의 식물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백록담 정상에서 흰 사슴(白鹿)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尹濟弘은 제주경차관으로 제주에 입도하여 1825년(순조 25) 9월 16일 당일 일정으로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해 한라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과 관련된 설화와 노인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漢拏山圖」에는 백록담 남벽 정상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본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백록담 북쪽 봉우리를 십성대로 표시해 놓고 있으며, 백록담 내벽의 磨崖刻에 대한 언급까지 세세하게 그림에 표현해 놓고 있다. 특히 분화구내에 백록을 탄 신선의 모습을 그려 넣었으며, 해와 달을 관찰하는 장소인 ‘日觀峯’과 ‘月觀峯’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sup>56)</sup>

李源祚는 가마를 타고 제주유생 김영락, 막료 이인관, 정의성, 이노하 등과 제주성을 출발하여 죽성촌(7다시마을)에서 1박을 한 후 열안지오름 기슭을 거쳐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남벽 쪽으로 돌아 내려온 후 서쪽 대정현 쪽인 영실과 오백나한 절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서북쪽으로 내려서 광령리 위쪽에 위치한 四所場<sup>57)</sup> 牧場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이생촌(광령2리)에서 말을 갈아 타고 제주성 서문으로 돌아왔다.

崔益鉉은 제주에 유배온 후 한라산을 오르고 싶어 갈망하다가 유배에서 방면되자 제주선비 李基璠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동행자 10여명과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성 남문을 출발하여 방선문<sup>58)</sup> 계곡을 지나 죽성촌에 이르러 1박을 하고 탐라계곡과 개미목, 삼각봉을 거쳐 정상에 이르렀다. 백록담에서 주변 경관을 둘러본 뒤 동쪽 석벽을 돌아 내려온 뒤 화구벽 남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다음날 서쪽 등람로인 영실의 천불봉을 거쳐 하산하였다.

56) 앞 12쪽 <그림 1> 참조

57) 4소장 목장은 조선시대 조선정부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설치한 10개의 國馬場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 4소장은 현재 제주시 오라동~해안동 중산간 초지대에 형성된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10개 국마장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강만익, 2001:39)가 참조된다.

58)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에는 최익현이 이기온과 함께 이곳을 지났음을 보여주는 마애각이 새겨져 있다.

金羲正은 이기용, 김희선, 김진호 등과 함께 고향인 조천에서 출발하여 괴평촌을 지나 단애봉(절물오름)의 절물에서 점심을 먹고 한라산 동쪽 등람로를 따라 올랐다. 조천읍 교래리 지경인 도리석실에서 1박하고 구상나무숲을 지나 방아오름 근처로 추정되는 '통궤' 석실에서 식사를 한 후, 남벽을 올라 백록담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서 제주섬 주변 섬들을 굽어본 후 한라산 북쪽 개미목 주변에서 다시 노숙을 한 후 산허리를 돌아서 올라왔던 동쪽 등람로로 하산하였다. 인물별 등람당시 여정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유산자들의 등람여정

성 명	등람시기(소요일수)	주요 여정
임 제	1578. 2. 10 ~ 2. 16(7일)	제주목 ->영실 존자암 ->백록담 ->두타사 ->하산 ->제주목
김상헌	1601. 9. 24 ~ 9. 25(2일)	제주목 ->무수천 ->존자암 ->백록담(한라산신제) ->제주목
김 치	1609. 4. 8 ~ 4. 9(2일)	제주목 ->존자암 ->백록담 ->제주목
이 증	1680. 3. 19 ~ 3. 20(2일)	제주목 ->존자암 ->백록담(한라산신제) ->제주목
김성구	1680. 3. 19 ~ 3. 20(2일)	제주목 ->영실 -> 백록담(한라산신제) -> 의귀원 -> 정의현성
이익태	1694. 8. 16 ~ 8. 17(2일)	제주목 ->한천(탐라계곡) ->백록담 ->영실 -> 제주목
이형상	1702. 4. 15(당일)	제주목 ->한천(탐라계곡) ->백록담 ->제주목
이해조	1707년 봄 추정 <sup>59)</sup> (당일)	제주목 ->북쪽 ->백록담 ->영실 ->제주목
조관빈	1732. 4. 1(당일)	대정현 ->영실 ->백록담 ->대정현
윤제홍	1825. 9. 16(당일)	제주목 ->영실 ->백록담 ->제주목
이원조	1841. 7. 10 ~ 7. 12(3일)	제주목 ->한천(탐라계곡) ->백록담 ->영실 ->제주목
최익현	1875. 3. 27 ~ 3. 29(3일)	제주목 ->한천(탐라계곡) ->백록담 -> 영실 ->제주목
김희정	1895. 5. 5 ~ 5. 7(3일)	제주목(조천) ->괴평촌 ->도리석실 -> 통궤석실 ->백록담 ->개미목 ->조천

59) 기록에서 보면 산을 오르는 도중에 봄에 피는 꽃인 제비꽃과 돌위에 우거져 있는 덩굴을 감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등람시기는 봄철로 추정된다(李海朝, 「登漢拏山」: “堇鋪地 有草蔓生 鞞鞞石上”).

## 2) 등람동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산행을 공부의 수단으로 삼아 심신을 수련하는 기회로 삼거나 또는 산 속에 축적되어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체험하기 위해 산행을 했으며, 그 결과를 遊山記의 형태로 남겨 놓았다. 그렇다면 제주도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산을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13편의 한라산 유산기록에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는 등람 인물들의 등람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산기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등람동기는 빼어난 한라산의 경승을 구경하기 위한 山水遊覽이었다. 제주유배인과 관리들은 고대부터 신선이 산다고 하여 瀛洲山으로 불리어온 한라산을 동경하여 한라산의 모습을 감상하기 위하여 등람했다. 임제, 김치, 이익태, 조관빈, 윤제홍, 이원조, 최익현, 김희정의 한라산 등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등람이 행해졌다. 이것은 공무수행 목적으로 임금의 명을 받고 제주도에 부임해 온 관료가 백성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한라산신제 제관의 자격으로 산을 오른 경우이다. 김상헌과 이증, 김성구, 이해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한라산의 특이한 풍물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자연조사의 목적으로 산을 오른 경우이다. 이형상이 이에 해당한다. 한라산을 오른 등람동기에 따른 인물을 구분하여 <표 4>에 정리 했다.

<표 4> 등람동기에 따른 인물구분

등람동기	인원	해당 인물(등람연도)
산수유람	8명	임 제(1578), 김 치(1609), 이익태(1694) 조관빈(1732) 윤제홍(1825), 이원조(1841), 최익현(1875), 김희정(1895)
한라산신제 거행	4명	김상헌(1601), 이 증(1680), 김성구(1680), 이해조(1707)
자연풍물 기록	1명	이형상(1702)

(1) 山水遊覽을 위한 산행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높고 산세가 수백여리에 걸쳐있으며, 예로부터 제주의 鎮山이면서 신선이 산다고 하는 瀛洲山으로 불려 왔다. 그리고 빼어난 풍광과 경승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제주인은 물론 제주도에 부임해 온 외지의 관료들은 신선이 산다는 한라산을 올라 신선의 풍취를 한 번 느껴보고 싶은 열망과 한라산의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경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글에서 고찰한 한라산 유산기록에서도 이러한 仙遊意識을 가지고 한라산의 풍광을 구경하려고 산을 오른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실례로, 임제는 제주를 두루 돌아보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신선이 산다고 알려진 한라산을 꼭 오르고 싶어 겨울눈이 쌓인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한라산에 눈이 녹기를 노심초사 기다렸다고 한다. 신선이 산다는 瀛州山으로 올라가 신선을 만나기 위해 산행을 시도하였다. 임제는 한라산 등람에 따른 감흥을 (A)와 같이 오언절구, 칠언절구의 시 여러 편을 지어 수록하였다. 정상에 올라서는 정상부가 등그렇게 된 모습과 돌이 쌓인 모양이 마치 無等山과 같지만, 높이와 크기는 무등산의 배가 된다고 했다.

(A) 오랫동안 신선이 사는 산을 마주 보고만 있으니 우울하여 즐겁지 않았다. ... 절정에 도착하였다. 속세의 풍광은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 난새 통소 소리를 듣는 듯하고 신선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sup>60)</sup>

김치는 일찍이 한라산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올라 보려는 평생의 큰 뜻을 이뤄보기 위해 한라산 등람을 감행했다. 마침 1609년(광해군 1) 이른 봄에 吏曹正郎으로 있을 때, 제주관관에 제수되어 제주로 가는 뱃길에서 멀리 제주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B)와 같이 신선이 산다는 三神山 중 하나인 한라산의 모습이 그리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은 듯이 보여 적잖이 실망했다고 솔직히 적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한라산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자 등람하게 된다.

60) 林梯, 「南溟小乘」: “長對仙人 鬱鬱不樂 … 人間風日 遠隔三千 疑聽鸞簫 悅見芝車.”

(B)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심하게 높지 않고 좌우로 긴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속으로 말하기를 세상에서 이른바 瀛洲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일까? 찾아가서 살펴어 의혹을 깨뜨리고 싶다.<sup>61)</sup>

이익태는 신선을 찾는 기쁨을 누리고자 신선이 산다는 한라산의 백록담을 찾아가게 된다. 새벽 일찍 산을 올라 한라산의 자연풍광에 반하게 되고,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풍광을 체험했다는 오언울시를 남기고 있다.<sup>62)</sup>

조관빈은 신선이 사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 왔음을 밝히고 (C)에서와 같이 일찍이 한번 그곳을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목 대정현에 유배 왔다가 出陸승이 내려지자, 그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신선산인 한라산을 유람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드물게 유배인으로서 한라산을 오른 경우이다. 조관빈은 제주에 유배왔을 때, 한라산이 나지막하고 완만한 산으로 생각하여 과연 三神山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이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산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C) 어릴 때부터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고 들었다. 신선의 산이라 불려진다. 일찍이 그곳을 한번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큰 바다가 그 곳 사이를 가로막고, 험하고 또 멀었다. 항상 산에 끌리어서 평소 항상 목을 빼고 그리워만 하면서 (한라산은) 마치 天上에 있어서 아무나 올라볼 수 없는 곳으로만 생각했었다.<sup>63)</sup>

이원조는 관아인 관덕정 망경루에서 한라산을 보았을 때는 산이 낮고 작아보였는데, 사라봉에 오르면서 바라보니 점점 높게 보이더라고 했다. (D)에서와 같이 등산이란 道를 배우는 것과 같아서 공자의 위치에 도달한 후라야 바야흐로 가히 태산에 오를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한라산에서 공자의 기상을 느끼고자 했다.

61) 金緻, 『遊漢拏山記』: “道上望見漢拏 卽不甚峭峻 長山巨麓 橫鎖於一面而已 竊自語曰 世之所謂瀛州者 卽此山而居於三山之一 豈名實之不相符耶 抑人清之貴耳賤目而然耶 盍往探討 以破疑惑.”

62) 李益泰, 『知瀛錄』: “秋日尋眞路 丹崖琪樹間 天低白鹿岳 雲鎖赤松開 環海疑無地 求仙喜有山 平生壯觀最 此遊豈等閑.”

63) 趙觀彬, 『遊漢拏山記』: “余自少時 已聞漢拏在耽羅 以仙山稱 嘗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且遠 居常引領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也.”

(D) 제주에 부임하여 망경루 누각에 누웠는데, 마주한 한라산이 책상 사이에 있는 듯, 심히 높지도 험준해 보이지도 않아서 만만하고 놀아볼만 하다고 여겼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해지는 것을 바라보려고 사라봉에 올라갔었다. 괴이한 것은 내가 사라봉에 더욱 더 올라갈수록 한라산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었다. 마치 공자를 우러르면 더욱 높고, 뚫으려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 이미 탐라바다를 건너 와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다.<sup>64)</sup>

최익현은 제주에서의 유배기간 중 (E)에서와 같이 한라산이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으나 구경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주변의 이야기와 삼신산이라서 사람이 쉽게 유람할 수 없다는 말에 놀라고 있던 중, 1875년 특별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자 제주유생 李基璠과 함께 드디어 꿈에 그려왔던 한라산을 올라가게 된다.

(E) 한라산은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는데, 구경한 사람이 아주 적으니 어찌 능히 오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인가? ... 마침 特赦의 은혜로 풀려난지라 드디어 한라산을 찾을 계획을 정했다.<sup>65)</sup>

김희정은 제주출신으로써 유배 온 최익현과 왕래하며 학문과 문학을 교류했던 인물이다. (F)에서처럼, 1875년 면암 최익현이 귀양에서 풀려나 한라산을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행 하지 못함을 깊이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한라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1895년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한라산을 오르려는 마음을 먹고 산행에 나서고 있다.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는 머물던 안개가 걷히고 백록담의 장관이 깨끗하게 보여 마음이 황홀해지고, 신선 이 나타났다가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한라산 산행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F) 호남에서는 월출산을 보았고, 충청도에서는 계룡산을 보았고, 서울에서는 남산과 삼각산을 보았으며, 또 영남에서는 지리산을 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아직 한라산을

64) 李源祚, 「遊漢拏山記」: “余蒞此州日寢處望京樓上 前對拏山 在几案間不甚高峻 可狎而玩也 已而觀落照登紗羅峰 怪其我愈登而彼愈高 有似乎孔門之鑽仰 眞見卓爾之立 ... 旣渡耽羅海 不見漢拏山是自書也.”

65) 崔益鉉, 「遊漢拏山記」: “漢拏名勝 聞於天下 而考諸邑誌 聽於人語 觀者甚鮮 豈不能歎 抑不爲歎 ... 適以特恩出棘 遂定尋眞計.”

오르지 못하였다. … 지난 을해년 봄에 면암선생이 귀양이 풀려 돌아가면서 (한라산에) 올랐는데, 따르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오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 지금의 기회를 버리고 유람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와 앓은뱅이가 텅 빈 방을 지키는 꼴이 될까 두렵다.<sup>66)</sup>

## (2) 한라산신제를 위한 산행

한라산신제는 1418년(태종 18) 한라산이 祀典에 등재되어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가 춘추로 이루어졌다. 명산대천에 제를 지내는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라의 일로 산신제는 백록담에서 봉행되었다.<sup>67)</sup> 그러던 중 김상헌은 1601년 제주에서 발생한 길운절과 소덕유의 반란역모 사건을 진압하고, 혼란에 빠진 제주 백성들을 위로하여 조정의 德音을 전하고자 제주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라산에 올라 산신제를 지내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안무어사로 부임해 온 직후인 1601년 9월 24일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에서 노숙을 한 후 다음날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제관은 제주관관 이종일, 대정현감 이신, 정의현감 이연경, 제주훈도 진위 등이었다. 김상헌이 남긴 기록에서 (G)와 같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내는 모습을 알 수 있다.

(G) 저녁에 관관이 와서 아뢰기를 한라산 제물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였다. … 백록담 북쪽 구석에 단이 있으니 本州에서 늘 祈雨하는 곳이다. 밝을 무렵에 제사를 지냈다.<sup>68)</sup>

이증과 김성구는 각각 제주안핵겸순무어사와 정의현감 신분으로 한라산신제에서 제관을 맡았기 때문에 차제에 한라산 백록담을 함께 올라갈 수 있었다. (H)에서와 같이 1680년 3월 19일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장막을 치고 노숙을 한 후 다

66) 金義正, 『漢拏山記』: “是以前嘗北遊於湖南見月出,於湖北見鷄籠 於上都見終南三角 又於嶺南見智異 而尙未登漢拏 … 在乙亥春 勉菴先生蒙有 而返, 不時登臨,有事未從 自是以來 欲往而未能 不止一再 … 捨今不遊 恐爲覽者之守空堂.”

67) 太宗 18年, “禮曹上濟州文宣王釋奠祭儀及漢拏山祭儀 釋奠儀依各道界首官例 漢拏祭依羅州錦城山例 載諸祀典 春秋致祭”, 1470년(성종 1) 목사로 부임한 李約東에 의해 제주시 산천단으로 제단을 옮겼으나, 제주에 부임해 온 관료들은 부임 직후 한라산을 올라서 제를 올리는 게 관행인 듯 하다.

68) 金尙憲, 『南槎錄』: “夕判官來告 漢拏山祭物已備云 … 潭之北有壇 本州常時祈雨處也 質明行事.”

음날 새벽에 산신제를 지냈다. 이증의 기록에서는 제사지내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으나 제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으며, 김성구의 기록에서는 이튿날 새벽에 단상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H) 제관인 관관 강성좌, 정의현감 김성구, 대정현감 이당, 교 정유설, 전현감 문영 후, 전찰방 김계룡, 전전적 김계창, 훈장 고득종과 함께 향축을 모시고 남문을 나서서 연무정에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고…….69) 四更 초에 (백록담) 단상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날이 밝자 출발하였다.70)

이해조는 성균관 시재안무어사의 자격으로 제주에 임시 부임해 온 관료로서, 여느 관료들처럼 부임 후 한라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 구체적인 여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기록 첫 문장에 (I)와 같이 글의 소재목을 달고 있다.

(I) (정상에서) 제사가 파하니, 바다에는 이미 아침 해가 희미하게 올라와 있다.71)

### (3) 자연풍물 기록을 위한 산행

이형상은 제주목사로 부임해 온 기간 동안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서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耽羅巡歷圖」를 그리게 하였고, 제주에 관한 지방지로 『南宦博物』을 저술하였다. 그는 『南宦博物』에 한라산 정상에 올라 본 제주삼읍과 방어진 모습, 멀리 바라다 보이는 여러 섬들과 육지의 모습, 그리고 제주 섬의 여러 오름(側火山)들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다. 또한 (J)와 같이 한라산에서 관찰한 식물72)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J) 남쪽 산기슭에도 나무가 있는데 측백도 아니고 삼나무도 아니며 박달나무도 아

69) 李增, 『南槎日錄』: “與祭官判官姜聖佐 旌義縣監金聲久 大靜縣監李籟 教授鄭維高 前縣監文榮後 前察訪金繼隆 前典籍金繼敞 訓長高得宗 陪香祝 出南門到演武停 改服.”

70) 金聲久, 『南遷錄』: “四更頭 行祭于壇上 平明發行.”

71) 李海朝, 『登漢拏山』: “祭罷海旭已微昇.”

72) 趙寅 金正은 「濟州風土錄」에서 한라산 오미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라산 오미자는 육지부의 자춧빛 오미자와 달리 열매가 매우 검고 크다고 하고 있으며, 제주산 오미자가 천하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金淨, 『濟州風土錄』: “而五味子亦多 而實深黑而大如濃熟山葡萄 不可辨 味又濃甘 … 意此土產者必高於天下無疑矣”).



니고 전나무도 아니며 은은히 幢蓋 같은데, 전하기를 계수나무라고 한다. 또 蔓芝가 있는데 땅에 무더기로 나서 무성하다. 줄기에는 가는 털이 있고 색깔은 푸른 이끼 종류이며 마디마디에 뿌리가 난다. 혹 비녀살 같기도 하고 혹은 명주실 같기도 하다. 맛은 달고 향기는 비록 계수나무와 영지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기이하다.<sup>73)</sup>

## 2. 등람관행과 마애각 제명

### 1) 동행인 및 숙박처, 이동수단

한라산 유산기를 남긴 등람인물들은 한라산을 올라갈 때 현지사정에 밝은 제주출신 유생 및 명망가, 사찰승려 등을 대동해 올랐다. 특히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경우에는 제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三邑 수령들(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과 동행했다. 그리고 (K)에서와 같이 길 안내자에 대해서는 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꼬불꼬불하고 험한 한라산길의 안내는 주로 山尺(‘산장이’)이나 나무 벌채꾼, 사냥꾼 등을 앞장세우는가 하면 존자암의 승려도 길 안내를 돕고 있었다. 즉, 한라산의 험한 길 안내는 한라산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제주도 토박이나 산사의 승려 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원조는 (L)에서와 같이 하산길 영실부근에서 부득이 노숙을 하게 되면서 함께 동행한 이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함께 피력하고 있다.

(K) 山尺이 와서 말하기를, 산 속에 눈이 얼마쯤 녹아서 사람이나 말이 통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74)</sup> (존자암) 修淨 스님으로 하여금 앞을 인도하게 하였다. 언덕과 고개가 겹겹이 있었고, 길이 심히 위험하였다. 혹 말을 타거나 혹 걸어가면서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였다.<sup>75)</sup> 이로부터 산길은 더욱 걸기가 어렵고 걸음마다 위험하여 견여에 의지하여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였다.<sup>76)</sup> 비가 올 조짐은 좀 풀렸고 길을 안내

73) 李衡祥, 『南宦博物』: “南麓有樹 非柏非杉非檀非檜隱隱如幢蓋 傳以爲桂也 又有蔓芝着地筆茸 莖有細毛色類青苔 隨節生根 或如釵股 或如緝絲 味甘 而香雖非桂芝然亦異矣.”

74) 林梯, 『南溟小乘』: “山尺來報曰 中雪消幾盡 人馬可通行.”

75) 金織, 『遊漢拏山記』: “使修淨前導 重岡複嶺 路甚危驗 或騎或步 互相先後.”

해 줄 사냥꾼 몇을 약속대로 만났다.<sup>77)</sup>

(L) 피곤한 아전들과 서너 마을의 백성 열 남짓한 사람들이 供億을 갖춰내어 芟舍에 이바지 하였다. 유람관광으로써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가히 후회스럽다.<sup>78)</sup>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자들은 존자암 등 사찰, 등람로 초입의 산촌마을에서 숙박을 해결했다. 한겨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봄과 여름, 가을철에 산을 오르고 있어 여정의 목적에 따라 숙박하는 장소도 차이를 보였다. 당일등산 일정으로 다녀온 이형상과 이해조, 조관빈, 윤제홍 등을 제외하면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오른 김상헌과 이증, 김성구 등은 백록담 주변이나 분화구내에서 노숙을 하면서 제사지내는 시간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한여름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백록담 주변에서 노숙을 하며 새벽에 산신제를 지내고자 했던 당시 수령의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산수유람차 올랐던 이익태도 정상부에서 노숙을 했다. (M)의 자료들은 백록담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등람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M) 해 질 무렵 비로소 꼭대기에 도착하였다. 바위에 의지하여 장막을 치고 잤다. …三更에 일어나 동쪽 끝을 바라보았다.<sup>79)</sup> 한라산 맨 꼭대기 백록담가에 장막을 치고 잤다.<sup>80)</sup> (백록담) 모퉁이에 임시로 지은 막사에서 밤을 지내는데 추위가 심하여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四更 초에 단상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날이 밝자 출발하였다.<sup>81)</sup> 정상에서 잠을 자면서 해와 달뜨는 것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름과 안개가 늘 가려버려 시원하게 볼 수가 없어 한탄스러웠다.<sup>82)</sup>

이원조와 최익현 등은 (N, O, P)에서와 같이 북쪽 등람로 초입의 산촌마을인 죽성촌에서 1박을 하고 산으로 출발하였으며 다음날 저녁은 각각 오백나한 또는 백록담 내에서 장막을 치고 노숙을 하였다. 김희정도 동굴과 바위틈(‘窟’)에서 노

76) 李衡祥, 『南宦博物』: “自此山路益艱 步步危驗 肩輿扶推 寸寸前進.”

77) 金義正, 『漢拏山記』: “雨意稍解 指路獵夫數人 依約而會.”

78) 李源祚, 『遊漢拏山記』: “疲吏 數三村氓十餘人 辨供億 芟舍 以遊觀而貽民幣可悔也.”

79) 金尙憲, 『南槎錄』: “日沒時 始到絕頂下 依巖張幕而宿 … 三更月出 起視東極.”

80) 李增, 『南槎日錄』: “宿漢拏山絕頂 白鹿潭邊依窟.”

81) 金聲久, 『南遷錄』: “經夜於假幕 寒甚不能交睫 四更頭 行祭于壇上 平明發行.”

82) 李益泰, 『知瀛錄』: “仍宿絕頂爲觀日日出而雲霧常蔽不能快觀可歎.”

숙을 하면서 한라산을 다녀왔다.<sup>83)</sup> 반면에 김치는 존자암에서 1박을 하였고, 임제는 존자암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하산길에 두타사라는 절에서 숙박을 하였다.

(N) 竹星村에서 잠을 잤다. 닭이 세 번 울자 햇불로 행렬을 만들어 출발하였다. ... 낭떠러지가 완만한 곳에는 기이한 암석들이 늘어서 있었다. ... 날이 이미 저물었고, 가까운 곳에 인가도 없었다. 부득이 노숙할 계획을 세웠다.<sup>84)</sup>

(O) 들으니 여기서 人家가 있는 데까지는 멀다 하고, 또한 밤이 차갑지 아니하니, 도중에 피곤하여 거꾸러지는 것보다 차라리 잠깐 노숙하고서 내일 홀가분하게 가는 것이 어떠한가하니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하였다. 드디어 바위를 의지하여 나무를 걸치고 모닥불을 피워 따뜻하게 한 뒤에 한 마당 잠이 들었다.<sup>85)</sup>

(P) 수십 리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술한 기암과 골짜기를 지나 저물녘에 산기슭에 이르러 도리석실에 들어가 ... 마음속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빌고는 석실가에 마련한 한 자리에 돌아와 누워 선잠을 잤다. ... 행보가 개미목 동쪽에 이르렀다. 지형이 조금 널찍하고 평평하며 조릿대가 앞에 깔렸던 것보다 많아서 자리를 깔고 노숙하였는데, 밤이 되니 정신은 맑아지고 뼈 속까지 시려와 양가죽이 오히려 얇게 느껴졌다.<sup>86)</sup>

이렇게 볼 때 한라산에는 인가나 숙박을 해결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별로 없었던 듯 하며, 山寺나 산촌마을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험한 한라산 길과 밤이 되면 엄습해 오는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며 불가피하게 바위틈에 장막을 치고 노숙을 했던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한 인물들은 유배인들과 제주목사, 대정현감, 정의현감 등 관리들이어서 한라산 정상부로 가는 이동수단의 확보가 고민거리였다.

83) 1901년에 한라산을 오른 독일인 지그프리트 켄테는 한라산 서쪽등람로상의 나무벌채꾼이 기거하는 동굴에서 자기도 하였으며, 1905년에 한라산을 오른 일본인 이치가와 상키는 한라산 북쪽 능화동 마을에서 텐트를 치거나 오래된 폐가를 이용해 체류했다.

84) 李源祚, 「遊漢拏山記」: “宿竹星村 鷄三鳴 列炬而發 ... 壁漫處奇巖離立 ... 日已暮 近地無人家 不得已 作路宿計.”

85) 崔益鉉, 「遊漢拏山記」: “聞此距人甚遠 夜亦不寒 與其顛倒疲困於途中 曷若暫次露宿 使明日事爲易易也 衆日可 遂倚巖架樹 爇火以溫之 一場假眠.”

86) 金義正, 「漢拏山記」: “行行數十餘里 閱盡千岩萬壑 暮當山麓 投道理石室 ... 歸枕石頭一場 假寐 ... 行至蟻頂之東 地稍寬平苦竹尤多於前藉 而茵路宿 達夜神清骨冷羊裘猶薄.”

등람인들은 폭이 좁은 등람로에서는 걷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타거나 두 사람이 앞뒤에서 메는 가마인 보고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나 산의 높은 곳 상당부분은 대부분 말을 이용하여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 걸어서 산을 오르는 요즘시대의 산행개념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Q)와 같이 임제의 기록에서 보면 걷기도 하고(步), 말을 타기도 하고(騎), 가마(藍輿)<sup>87)</sup>를 타기도 하면서 험한 한라산길을 오르는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Q) 도끼로 나무를 치고 빙설을 뚫으며 길을 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혹 말을 타기도 하고, 혹 걷기도 하고, 혹 가마를 타기도 하며<sup>88)</sup>

지금까지 언급한 유산자들의 주요 동행인과 숙박처, 이동수단 등을 당일로 산을 오른 인물을 제외하고 산에서 숙박을 한 인물 위주로 <표 5>에 요약하여 정리했다.

<표 5> 주요 동행인 및 숙박처, 이동수단

인 물	주요 동행인	숙박지 (체류일수)	이동수단
임 제	적객 신장령, 악공 유정길, 갑사 김예영, 정의현감, 존자암 승려 청순	존자암(5박), 두타사(1박)	말, 가마, 도보
김상헌	제주판관 이종일, 대정현감 이신, 정의현감 이연경, 제주훈도 진위	백록담 노숙	말, 도보
김 치	제주유생 민응생, 이효성, 정기수, 존자암 승려 수정	존자암 1박	말, 도보
이 증	판관 강성좌, 정의현감 김성구, 대정현감 이당, 교수 정유설, 전현감 문영후, 전찰방 김계룡, 전전적 김계창, 훈장 고득중	백록담 노숙	말, 도보
김성구	순무어사 이증, 판관 강성좌, 대정현감 이당, 교수 정유설, 전현감 문영후, 전찰방 김계룡, 전전적 김계창, 훈장 고득중	백록담 노숙	말, 도보
이익태	판관 노삼석, 노삼석 종제 노석룡, 권영림의 자 권만, 이익태의 종질, 정의현감 신명백, 대정현감 반처렴	백록담 노숙	말, 가마, 도보
이원조	제주유생 김영락, 막료 이인관, 정의성, 이노하, 이노하의 자 이정상	죽성촌(1박), 오백나한(1박)	말, 가마, 도보

87) 남여란 덮개가 없는 의자형의 가마로 조선시대 주로 산길 등 좁은 길을 갈 때 이용되었으며, 앞뒤에서 각각 두 사람씩 모두 네 사람이 어깨에 메는데 때로는 손으로 들기도 했다.

88) 林梯, 『南溟小乘』: “持斫樹 鑿水開路先道 或步或騎或藍輿.”

최익현	제주유생 이기온 일행	죽성촌(1박), 백록담 노숙	도보
김희정	제주유생 김진호, 김진호의 자 김시우, 김희정 장자 김항면, 하인 2, 사냥꾼 등	도리석실 노숙, 개미목 노숙	도보

## 2) 백록담내 마애각 제명

유산기록을 남긴 등람자들의 기록에는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인 백록담에 대한 경관의 모습과 정상을 오른 감회를 구구절절이 적고 있다. 수려한 한라산의 풍경과 신비로운 백록담의 장관은 그 곳을 오른 이의 넘치는 감흥을 주체할 수 없음을 글의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白鹿을 탄 신선이 머문다는 백록담에 올랐다는 감격은 곧 한시를 지어 남기거나 본인의 이름을 새겨 백록담에 올랐다는 증표를 남기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백록담 분화구내에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오른 연도 등을 마애각으로 바위 위에 새겨 넣고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조관빈, 김치, 최익현 등이다. 조관빈은 대사헌 상소건으로 인하여 유배를 와 정상에 올랐다고 백록담 내벽에 글을 새겨 넣었으며<sup>89)</sup>, 그의 유산기록에서는 1732년 출륙허가가 내려진 후 3월 28일에 한라산을 오르기로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장차 산을 향해 가려하니 비 날씨와 건강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4월 초하루가 되어서 가마를 재촉해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하였다.<sup>90)</sup> 제명된 내용 중 ‘壬子 三月’은 한라산 정상에 올랐을 때 제각을 하려고 오르기로 한 3월에 미리 써둔 문구가 아닌가 여겨진다.

김치는 그의 유산기록에서 백록담에 오르고 난 후 근체시 한수를 지었고 또 돌을 쓸어 제명을 하여 명승을 다녀간 발자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sup>91)</sup> 그러나 김치의 제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최익현은 백록담에 올라 분화구 북쪽으로 1리 쯤 떨어진 곳에 이른바 혈망봉

89)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被謫登此絕頂”

90) 趙觀彬, 「遊漢拏山記」: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 時暮春日暖 始以廿八日 約同行諸人 將向山去 自是夜雨 三日不止 停行 殊覺泄鬱 四月朔日曉 天色始霽 余乃不時促駕到山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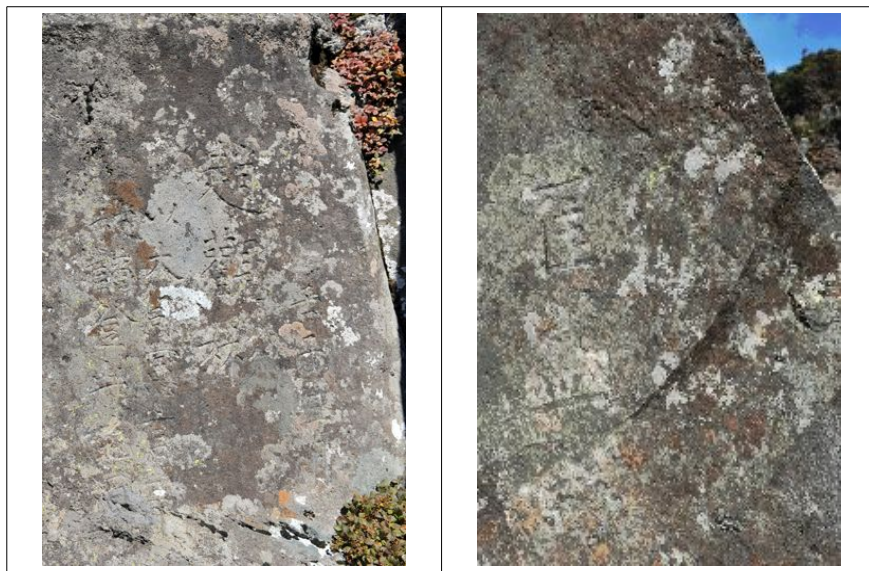
91) 金緻, 「遊漢拏山記」: “仍賦近體一首 又掃石題名 以記勝跡”

과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sup>92)</sup> 그리고 백록담 북쪽 분화구내에는 각을 새긴 연도도 없이 그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최익현이 아쉬움을 보인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고 하는 곳은 백록담 동측내벽 일대이며 북동측 내벽 최익현의 마애각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한편 윤제홍은 「漢拏山圖」에서 백록담 분화구 그림에 ‘晦軒題名’과 ‘趙氏題名’을 표시해 놓고 있는데, 필자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조관빈과 趙榮順의 마애각이 아닌가 여겨진다.<sup>93)</sup> 백록담 내에 글을 새긴 인물과 내용 등을 밝히면 <표 6>, <사진 1>과 같다.<sup>94)</sup>

<표 6> 백록담내에 마애각을 남긴 유산자들

성명	연도	서체	제명 내용
조관빈	1732	해서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被謫登此絕頂
최익현	1875	해서	崔益鉉



<사진 1> 백록담내 조관빈(좌)과 최익현(우)의 제명(촬영 고윤정)

92) 최익현, 「遊漢拏山記」: “向北里餘 謂有穴望峰 及前人刻名 而日仄未暇”

93) 앞 12쪽 <그림 1> 참조. 조영순은 대사헌으로서 1728년에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1729년 해배됨.

94) 고윤정, 「한라산의 마애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13, 230쪽: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에 유배왔던 金淨과 李灑의 마애각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제주에 입도한 시기가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백록담에 나란히 새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IV. 한라산 옛 등람로와 한라산 인식

### 1. 한라산 옛 등람로

한라산 등람여정은 출발지에서 한라산까지의 경로(서울-제주도-한라산), 제주도에서 한라산으로의 경로(제주-한라산), 한라산에서 돌아오는 경로(한라산-제주도-서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출발지[한양·나주]에서 제주도[한라산]까지의 경로를 보면 <표 7>과 같다. 이 자료는 임제(1577), 김상헌(1601), 이증(1679), 이익태(1694), 이원조(1841)가 한양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제주도(한라산)까지 왕복했던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한양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육로와 함께 바닷길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입도까지의 경로를 보면 임제는 고향인 전남 나주를 출발해 영암->무안->강진->조천포로, 김상헌은 전남 해남->진도->애월포 그리고 이증은 전남 해남에서 출발해 애월포로, 이익태는 해남->보길도->화북포, 이원조는 전남 영암->소안도->화북포를 이용한 것을 볼 때 당시 애월포와 화북포가 제주도의 관문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출발지(한양)-제주도(한라산) 왕복경로

성 명	기 간	여 행 경 로
임 제	1577.11.3 ~ 1578. 3. 3	나주->무안->삼일포->영암->강진->완도->제주(조천)->제주목->한라산->제주(화북포)->추자도->해남·강진->나주
김상헌	1601.8.13 ~ 1602. 2. 14	한양->수원->천안->공주->김제->정읍->나주->영암->강진->해남->진도->애월포->제주객사->한라산->조천관->대화탈도-수덕도->초란도->추자도->영암->한양
이 증	1679.10.27 ~ 1680. 4. 27	한양->수원->평택->부여->김제->정읍->나주->영암->강진->해남->화북포->제주객사->한라산->제주목->해남->강진->영암->나주->정읍->평택->수원->한양
이익태	1694. 5. 8 ~ 1694. 6. 29	한양->노량->남안->금천->평택->아산->온양->부여->임피현->청암->장성->영암->강진->해남->보길도->화북포->제주목
이원조	1841.3. 11 ~ 1841.윤3.2	한양->영암->고달도->소안도->제주(화북포)->화북진->제주목(관덕정)

다음은 조선시대 등람인들이 한라산을 오르고 내렸던 옛 登覽路[등산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옛 등람로는 현재 한라산의 주봉인 백록담을 향해 개설되어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탐방로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당시 등람로의 윤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2>는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인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돈내코등람로를 보여준다.



<그림 2> 백록담을 향한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 등람로(네이버 항공지도, 2013. 6월 현재)

조선시대의 한라산 등람로는 몇 개의 문헌자료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실례로 1653년 이원진의 『耽羅誌』 산천 조에는 한라산은 대정현을 경유하여 험한 산길과 나무사이를 따라서 오르면 꼭대기에 닿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5)</sup> 1841년 이원조의 『耽羅誌草本』에는 한라산에 이르는 길이 竹星村에서부터 三所場<sup>96)</sup>을 지나고, 숲 그늘과 무성한 밀림, 대나무와 향기로운 나무숲을 지나 돌이

95) 이원진, 『耽羅誌』: “由大靜有一鳥道 人從樹間攀緣.”

96) 3소장은 조선시대 제주지역 중산간에 설치된 세 번째 국영목마장으로, 현재 제주시 회천동~봉개동~제주대학교 일대에 해당한다.



많은 좁고 험한 길을 지나면 정상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7)</sup> 이로써 조선시대에는 한라산을 오르는 길은 대정현 지경에서 오르는 서쪽 등람로와 제주목에서 오르는 북쪽 등람로를 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를 토대로 당시 한라산 등람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등람로를 대략 4가지로 분류하여 복원했다.<sup>98)</sup> 바로 현재의 한라산 영실 등람로와 비슷한 한라산 서쪽에서 오르는 등람로, 현재의 관음사 등람로와 비슷한 한라산 북쪽에서 오르는 등람로가 있었으며, 한라산 동쪽과 남쪽의 등람로도 있었다.

기록에 나타난 한라산의 주요 등람로였던 한라산 서쪽과 북쪽의 옛 등람로를 우선 살펴보고 아울러 동쪽과 남쪽의 옛 등람로 등을 현재의 한라산 등람로와 비교하여 위성지도에 재현해 보았다.<sup>99)</sup>

#### 1) 한라산 서쪽 등람로

한라산 서쪽 옛 등람로는 대체로 제주목 서문출발 → 무수천 → 광령2리 → 영실 존자암(대정현 지경 진입) → 칠성대와 좌선암 → 백록담 남벽 → 백록담 분화구를 연결하는 코스였다. 유산기록을 보면, 한라산 서쪽으로 올라서 백록담에 이른 후, 다시 서쪽으로 내려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등람로를 이용했던 인물들은 김상헌과 이증, 조관빈, 윤제홍 등이다. 그리고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해 백록담에 도착한 다음 하산 시에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린 인물들은 임제와 김성구였으며, 김치는 서쪽으로 올라 북쪽으로 내려간 사례이다. 이들 산행에는 공통적으로 영실의 옛 존자암과 불래오름 자락으로 옮겨간 존자암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라산 백록담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찰이었기 때문에 숙식 및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존자암을 경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 서쪽 등람로는 백록담 정상에 이르는 동안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한라산 화구벽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한라산의 경치를 대표하는 수려한 자

97) 李源祚, 「耽羅誌草本」: “路自竹星村越三所牧場 林樾茂密林盡處有叢竹香樹 石經崎嶇攀緣.”

98)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자들의 등람로 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에 30년 이상 근무하며 한라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물을 내놓은 신용만 씨(61세)의 협조를 받았음을 밝힌다.

99) 위성지도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연경관인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이 존재하고 있어 조선시대 한라산 등람인들로부터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등람로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서쪽 등람로 상에 위치한 尊者庵은 해발 1100m 부근에 위치한 사찰로,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거쳐 갔던 일종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지점이었다.<sup>100)</sup>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했던 임제는 제주읍성 서문에서 출발해 도근천<sup>101)</sup>을 거쳐 한라산 서쪽에 위치했던 영실의 옛 존자암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등람하기 어려운 날씨로 인해 존자암에서 5일이나 머물다가 날씨가 맑아지자 오백장군골을 거쳐 남벽을 올라 백록담에 이르게 된다. 하산 시에는 정상에서 남벽으로 내려와 효돈천 상류로 추정되는 頭陀寺에서 1박한 후 남쪽으로 내려갔다.

김상헌은 제주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병문천과 한천을 지나 무수천, 존자암, 수행굴과 칠성대를 지나 좌선암을 구경하고 남벽으로 올라 백록담에 도착했다. 김치는 제주성을 출발하여 무수천~노루오름과 삼형제오름~불래오름 근처의 존자암~영실의 옛 존자암터~영실과 수행굴~백록담 남벽~정상에 이른다. 내려올 때는 백록담 북쪽으로 돌아 하산했다.

이증과 김성구는 제주목 읍성 남문을 출발하여 병문천, 한천, 무수천 상류를 지나 존자암에서 1박을 하고 영실과 수행굴, 칠성대를 통과하여 남벽을 올라 백록담에 도착했다. 이들의 등산목적은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함으로써 안핵겸순무어사로 제주에 잠시 파견된 이증은 다시 서쪽인 존자암 방향으로 하산했으나, 정의현감인 김성구는 동남쪽 방향인 衣貴院<sup>102)</sup>을 거쳐 정의현성으로 돌아왔다.

조관빈은 유배적거지인 대정현에서 출발하여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올랐을 것이다. 한라산 등반일정이 당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시간과 거리상 다시 하산시에는 서쪽 등람로로 내려와 대정현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 존자암은 1750년경까지 존재했던 기록이 있으나 1841년 기록부터는 언급이 없어 이 기간 사이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존자암은 고려시대 비보사찰이었다. 제주목사가 존자암을 위해 시주한 명문기와가 발굴되었다. 1500년경까지도 국가에서 하사받은 논에서 나는 경비로 제주목사가 존자암에서 국성제를 행하기도 했으며, 이후 존자암은 한라산제에 필요한 일정한 역할을 하거나 한라산 등반인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존자암의 위치는 1530년경까지는 한라산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에 있었다. 1578년 오백장군동 밑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존자암의 기록으로 미루어 1530년 이후 1578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考」, 『大覺思想』 제16호, 대각사상연구원, 2011, 초록 부분에서 인용).

101) 강정효는 조공천의 상류로 지금의 광령천 즉 무수천으로 추측하고 있다(『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 28, 제민일보, 2013).

102) 의귀원은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설치되었던 공무출장 중인 관리들을 위한 숙식처이다. 원은 교통이 편리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었으며, 대정현에서 정의현으로 갈 때 통과하는 도로변에 위치했다.

지금까지 제시한 한라산 유산기 기록자들의 여정을 종합해 볼 때 유산자들은 존자암을 지나 수려한 자연경관인 영실기암을 감상한 다음, 남벽 화구벽, 백록담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sup>103)</sup> 한라산 서쪽 옛 등람로는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등산로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도 이전에 이용되었던 영실의 구 등산로와 흡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당시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주요 경로를 보면 <표 8>과 같으며, 옛 등람로를 지도상에 복원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표 8> 유산자들의 한라산 서쪽 등람로 이동경로

왕 복 로	여행자 (연도)	주요 경유지
서→정상 →서	김상헌 (1601)	왕: 제주성 남문→무수천→존자암(영실)→영곡(천불봉)→수행굴→칠성대, 좌선암→중봉→정상 북: 정상→서쪽
	이 증 (1680)	왕: 제주성 남문→연무정→병문천→한천→무수천→용생굴→존자암(영실)→칠성대, 좌선암→정상 북: 정상→오백장군(영실)→존자암엠티→서쪽으로 하산
	조관빈 (1732)	왕: 대정현→한라산 서쪽 등람로→정상 북: 정상→서쪽으로 하산→대정현
	윤제홍 (1825)	왕: 제주성→한라산 서쪽 등람로→정상 북: 정상→한라산 서쪽 등람로→제주성
서→정상 →남	임 제 (1578)	왕: 제주성→도근천→존자암(영실)→영곡→남벽밑→정상 북: 정상→남벽밑→두타사→효돈천→남쪽으로 하산
	김성구 (1680)	왕: 이증과 같은 서쪽등람로 북: 정상→동남쪽으로 하산→의귀원→정의현성
서→정상 →북	김 치 (1609)	왕: 제주성→무수천→대정현지경→노루악→삼형제오름→불래오름→존자암(불래오름)→존자암엠티(영실)→수행굴→칠성대→남벽밑→정상 북: 정상→한라산 북쪽등람로→제주성

103) 1901년 독일인 지그프리트 켈테는 제주성을 출발하여 불교사찰의 유허를 찾아 한라산 서쪽으로 올라서 영실 주변 벌채꾼들이 기거하는 산속의 동굴에서 노숙을 하고, 오백장군을 거쳐 남벽으로 백록담에 올랐다가 동일 경로로 하산하였다.



<그림 3> 한라산 서쪽 옛 등람로(그림 내 흰색점선)

## 2) 한라산 북쪽 등람로

한라산 북쪽 등람로는 대체로 제주목 남문 출발 → 제주시 한천 → 탐라계곡 → 백록담을 연결하는 코스이다. 이 등람로를 이용하여 올랐던 인물로는 이익태와 이해조, 이형상, 이원조, 최익현 등을 들 수 있다.

이익태의 기록에는 등산길 여정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한라산 정상에서 노숙을 한 후 백록담 남쪽으로 돌아 서쪽의 영실을 지나며 기이한 바위 봉우리를 오래도록 구경했다는 하산길의 여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로 보아 제주성을 출발해 한라산 북쪽으로 올라 서쪽 등람로로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해조 역시 한라산 북쪽으로 올라 정상에 이르렀으며, 하산은 서쪽 등람로인 영실과 존자암 옛터를 지나 출발지였던 제주성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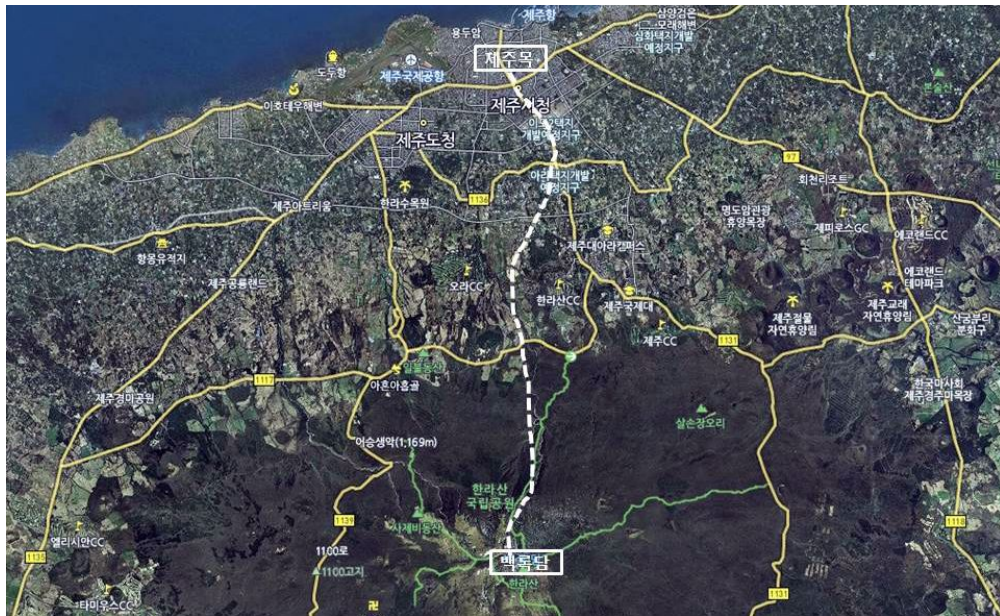
이원조는 제주성을 출발하여 죽성촌과 방선문을 지나 탐라계곡(한천 상류의 계곡)을 건너 백록담 북벽을 타고 정상에 오른 다음, 남벽으로 하산하여 서쪽 등람로인 영실기암 주변에서 노숙을 한 후 제주성에 돌아왔다.

이형상은 한라산 북쪽 등람로인 한천과 방선문, 탐라계곡을 거쳐 정상에 올랐다. 내려오는 길도 동일했으며, 내려오면서 본 한라산 북쪽 바다의 섬들을 『남환박물』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라산 북쪽 등반로를 이용해 산행했던 인물별<sup>104)</sup>로 주요 경유지들은 <표 9>와 같으며, 옛 등람로를 지도상에 복원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표 9> 유산자들의 한라산 북쪽 등람로 이동경로

왕 복 로	여행자 (연도)	주요 경유지
북→정상 →서	이익태 (1694)	왕: 제주성→한라산 북쪽등람로→정상 북: 정상→남벽→선작지왓→칠성대→수행굴→영실→존자암→제주성
	이해조 (1707)	왕: 제주성→북쪽(중대)→정상 북: 정상→남벽→영곡(영실)→존자암 옛터(영실)→제주성
	이원조 (1841)	왕: 제주성→죽성촌→중산→탐라계곡→정상 북: 정상→남벽→영곡→오백나한→금덕→광령→사소목장→이생촌(광령2리)→제주성 서문
	최익현 (1875)	왕: 제주성 남문→일계(한천상류)→방선문→죽성촌→중산→개미목→왕관릉→용진각→정상 북: 정상→남벽→영곡→제주성
북→정상 →북	이형상 (1702)	왕: 제주성→한라산 북쪽 등람로→정상 북: 정상→북쪽으로 하산



<그림 4> 한라산 북쪽 옛 등람로(그림 내 흰색점선)

104) 1905년 일본인 이치가와 상키인 경우는 제주목 남문을 출발하여 한라산 북쪽 산자락에 위치한 능화마을에서 40여일간 체류하다가 개미목과 왕관릉을 거쳐 백록담 정상에 올랐다.

### 3) 한라산 동쪽 등람로

한라산 동쪽 등람로는 대체로 절물오름 → 교래리 → 통계 → 백록담 남벽 → 백록담을 연결하는 경로였다. 이 등람로는 면암 최익현과 친분이 두터워 사제관계를 맺었던 김희정이 이용했던 등람로였다. 최익현이 이용했던 한라산 북쪽으로 올라 서쪽으로 내려가는 등람로를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한라산 동쪽 등람로를 왕복로로 이용했다.

그의 거주지가 제주도 동쪽 조천마을인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경로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도중에 힘이 들어 길안내자에게 서쪽에 한 줄기 좁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서 이쪽(동쪽)을 선택했는지 타박을 하니, 길안내자가 서쪽은 멀다고 답하는 모습에서 동쪽 등람로가 험하고 지루한 산길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sup>105)</sup> 집 앞에서 보이는 한라산을 동경하다가 마침내 한라산을 한번 올라보자는 중대결심을 하고 산행을 하게 되는데 김희정은 조천마을에서 남쪽으로 1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怪坪村을 지나 절물오름 아래에 있는 샘터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도리석실(교래리)에서 1박을 했다. 특히 교래리에서는 잡은 꿩으로 祭羞를 삼고 물을 술로 삼아 마음속으로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기원하기도 하였다. 교래리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여 진달래밭을 지나 구상나무숲과 조릿대 숲을 통과해 中峰에 도착했다.

중봉을 넘고 ‘통계’라고 하는 石室을 지나 남벽으로 올라 백록담 정상에 겨우 이르게 되는데, 하산은 백록담 북쪽 가장자리를 돌아 개미목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본인이 올랐던 동쪽 등람로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김희정의 왕복경로는 <표 10>과 같으며, 옛 등람로를 지도상에 복원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표 10> 유산자의 한라산 동쪽 등람로 이동경로

왕 복 로	여행자 (연도)	주요 경유지
동→정상 →동	김희정 (1895)	왕: 조천읍→괴평촌→단애봉(절물오름)→도리석실(교래리)→구상나무숲→중봉→통계석실→남벽→정상 복: 정상→북벽→개미목→동쪽으로 하산→조천읍

105) 金義正, 『漢學山記』: “聞 有一鳥道在於山西 如何捨彼 而陷人於危殆之地乎 指路者,謝以東近西遠”



<그림 5> 한라산 동쪽 옛 등람로(그림 내 흰색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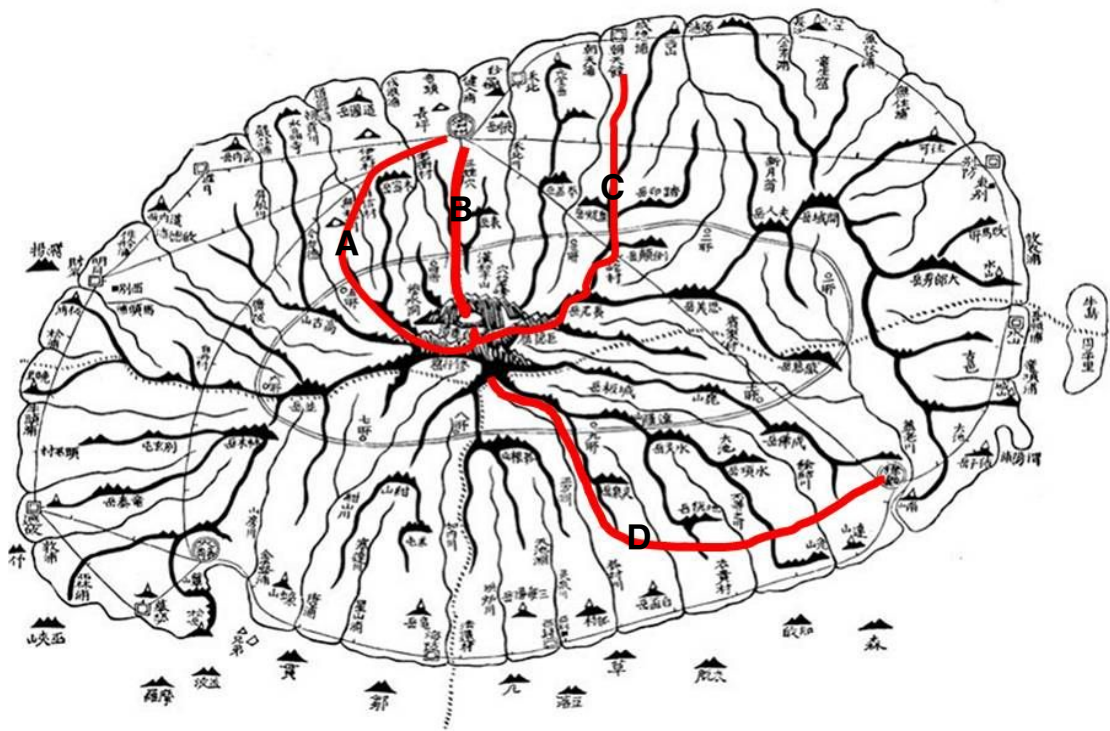
#### 4) 한라산 남쪽 등람로

한라산 남쪽 등람로는 대체로 현재의 서귀포시 → 효돈천 → 두타사 → 백록담 남벽 → 백록담 정상을 연결하는 경로였다. 한라산의 남쪽 등람로를 통하여 산을 오른 인물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나, 임제와 김성구가 남쪽 등람로를 따라 정의현 방향으로 하산했다. 임제는 대정현 지경 영실 존자암을 거쳐 정상에 이르고, 남쪽 방향으로 하산을 하여 두타사라는 절을 거쳐 정의현으로 하산했다.

정의현감인 김성구는 제주목사 이증과 함께 서쪽 등람로로 올라 정상에서 한라산신체를 지내고 본인은 남쪽으로 하산하여 의귀원을 거쳐 정의현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한라산 남쪽 등람로 역시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한라산의 또 다른 등람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남쪽 등람로는 정의현에서 출발하여 의귀리, 효돈천을 올라서 두타사를 지나 백록담 남벽을 올라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등람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한라산 남쪽 등람로를 <그림 6>과 같이 지도상에 복원해 보았으며, 이상에서 제시한 한라산 유산자들의 옛 등람로 4개의 노선을 종합하여 1861년에 제작된 「大東輿地圖」(제주) 상에 <그림 7>과 같이 재현해 보았다.



<그림 6> 한라산 남쪽 옛 등람로(그림 내 흰색점선)



<그림 7> 「大東輿地圖」에 표시한 한라산 옛 등람로  
 A: 서쪽 등람로, B: 북쪽 등람로, C: 동쪽 등람로, D: 남쪽 등람로



## 2. 유산기에 나타난 한라산 인식

이 절에서는 한라산 유산기에 기록된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에 대해 유산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sup>106)</sup> 본래 경관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오랜 세월을 두고 적응하며 이룩해낸 가시적 표출물인 동시에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 축적물<sup>107)</sup>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108)</sup> 특히 역사경관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전가치를 지닌 가시적 형태의 경관으로,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전승되는 전통 경관, 문화경관, 자연경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sup>109)</sup> 이런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한라산 유산자들이 한라산 등담과정 및 한라산 정상부에서 관찰해 기록한 경관 요소를 추출해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조선중후기 한라산과 제주지역의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표 11>은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한라산 경관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역사경관 요소

저자명	기록명	역사문화경관요소
임제	『南溟小乘』	제주성, 尊者庵, 山尺, 승려(청순), 老人星, 頭陀寺, 백록담
김상헌	『南槎錄』	제주성, 한라산신제, 존자암, 천불봉, 영곡, 칠성대, 좌선암,
김치	『遊漢拏山記』	瀛洲山, 존자암, 승려(수정), 영주초, 수행굴, 노인성, 대정현
이증, 김성구	『南槎日錄』, 『南遷錄』	한라산신제, 제주관관, 대정현감, 정의현감, 무수친, 용생굴, 존자암, 칠성대, 좌선암, 제주성곽, 외구음불, 衣貴院, 두무악
이익태	『知瀛錄』	생각지, 기우단, 존자암, 수행굴, 칠성암, 영곡, 행도굴, 존자암
이형상	『南宦博物』	보교, 등줄나무줄기, 향목, 향죽, 만향, 혈망봉

106) 이에 대해서는 오상학의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지리학연구』 제40권, 2006)이 참조된다.

107) 이혜은, 「朝鮮時代 以後 서울의 土地利用과 景觀變化」, 『서울의 景觀變化』, 서울학연구소, 1994, 198쪽.

108) 경관연구를 역사학 특히 지방(역)사 연구의 중요 방법론으로 채택한 사람은 영국의 지방사학자 윌리엄 조지 호스킨스로, 그가 시도한 역사학 분야에서의 경관연구 결과는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2007)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09) 박용국, 「초등학교 『사회 5-1』 교과서의 역사경관 고찰」, 『역사교육논집』 제47집, 역사교육학회, 2011, 403-404쪽.

이해조	「登漢拏山」	三邑九鎮, 기우제단, 혈망봉, 존자암, 총죽, 향단, 진혜
조관빈	「遊漢拏山記」	대정현, 혈망봉, 흰사슴
윤제홍	「漢拏山圖」	漢拏山圖, 백록담, 노인성, 흰사슴, 조씨제명, 월관봉, 일관봉
이원조	「遊漢拏山記」	망경루, 가마, 竹星村, 제주성, 오백나한, 三所場, 四所場, 이생촌(광령2리)
최익현	「遊漢拏山記」	이기온, 제주성, 방선문, 죽성촌, 수단화, 백록담, 영실, 천불암
김희정	「漢拏山記」	조천, 괴평촌, 도리석실(교래리), 구상나무, 통쾌석실, 개미목

## 1) 자연경관 인식

### (1) 白鹿潭<sup>110)</sup>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땅인 瀛洲山으로 불려 왔다. 이러한 인식은 한라산에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仙遊意識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 유산자 중 崔益鉉은 한라산을 큰 바다 가운데 있는 ‘砥柱’라고 표현했다.<sup>111)</sup> 또한 한라산은 바닷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외방 도적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곳이라고 높게 평가했다.<sup>112)</sup>

한라산의 정상부에 해당하는 해발 1950m에 위치한 白鹿潭에 대한 인식은 여러 문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林悌의 「남명소승」에는 “한라산 정상부의 봉우리 형세가 절벽과 같아서 용출한 것처럼 보이며, 구덩이 같이 함몰되어 못이 되었으며, 둘레는 7, 8리가량 된다.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정할 수 없으며,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풀들이 있다. 그 높고 큰 형상과 돌이 쌓인 모양이 무등산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백록담은 그야말로 신비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도 백록담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른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백록담은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

1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23일 국가지정 명승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10,230㎡에 달한다.

111) 본래 ‘砥柱’는 중국 황하강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로, 격류 속에서도 우뚝 솟아 꿈쩍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112) 崔益鉉, 「遊漢拏山記」: “夫以彈丸孤島 砥柱大海 在邦爲三千里水口捍門 外寇不敢伺 而山珍海.”

람했던 인물들이 쓴 詩의 핵심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라산이 절해고도에 위치한 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수많은 詩人墨客들이 한라산을 동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이 있어 더욱 신비스러운 산이요, 나아가 신선이 사는 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또한 흰 사슴을 탄 백록담 노인 이야기나 신선이 먹는 不老草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장수를 상징하는 老人星<sup>113)</sup>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라는 인식은 한라산과 백록담을 더욱 신성시 하게 만들었다.

고도가 높아 은하수(雲漢)를 끌어당길 만 하다는 의미의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頭無岳 그리고 꼭대기가 둥글어서 圓山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으며, 정상부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라산은 인간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다. 조관빈, 김치, 김희정, 최익현, 이해조의 기록은 한라산 백록담에 대한 仙遊意識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은 (가)와 (나)같이 백록담의 외형상 모습 뿐만 아니라 신선과 백록을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여 티끌기가 전혀 없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山角(산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백록담은 참으로 天府의 성곽이었다. 그리고 그런 백록담의 신비로움을 (다)와 같이 7언절구로 표현하고 있다.

(가) 층층이 울창해 사방을 에워쌌고 가운데에 맑은 담못이 있어서 깊이 몇 길이나 된다고 하니 여기가 백록담이다. 속세에 전하는 말이 신선이 백록을 타고서 이 못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아까 백록이 있어서 백록담 가를 따라서 지나갔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그때부터 일기가 아주 맑았다. 바다는 확 트여서 하늘과 바다가 서로 포용하는 듯해서 너무 넓어서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sup>114)</sup>

113) 김일권은 수명장수를 상징하는 남극노인성은 매년 춘분과 추분 무렵 남쪽하늘 지평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도 35도 이하인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거북도가 -52도로 상당히 낮아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로부터 무병장수한다는 점성이 붙었는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다(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 71쪽).

114) 趙觀彬, 「遊漢拏山記」: “層巒四圍 中有潭綠淨 深可數丈 卽白鹿潭也 俗傳神仙騎白鹿 遊於此潭云 俄而有白鹿 從潭邊過 誠一奇事也 于時天氣澄清 海色莽濶 上下相涵 浩無涯畔”

(정상에서)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곳에서 여러 신선들이 하얀 사슴들에게 물을 먹인다 하는데, (백록담이라는) 못이 이름을 얻은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115)

백록담의 안개가 모두 사라져 맑고 깨끗하기가 한 짐 티끌도 없으니 별천지에 온 느낌이다. 산의 가장 높은 곳을 서봉이라고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 네발로 기어오르니, 초연히 정상에 우뚝 섰는데 그 풍경이 표표하고 호호해서 내 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116)

(나) (백록담이) 푸른 듯 맑고 깨끗하여 티끌기가 전혀 없으니 은연히 신선들이 사는 듯 하였다. 사방으로 둘러싼 山角들도 높고 낮음이 다 가지런하니 참으로 天府의 성곽이다.117)

(다) 백록담 안이 평평해 큰술 같은데 바위가 둘러치고 구름이 병풍을 쳤네  
 예부터 오랫동안 눈이 녹지 않아 못에 홍몽이 부서져 절로 푸름이 넘실거리네  
 깨끗한 이슬(백록담물)은 신성 사슴이 마시고 얇은 이슬은 낙엽 키워 꽃이 우거지네  
 시인이 바다를 날아다니는 걸 꿈꾸니 이산의 울창함이 신선계의 문을 열어주네118)

윤제홍은 직접 그린 「漢拏山圖」에서 백록담 분화구 내에 백록을 탄 신선을 그려놓았는데 하면 백록담의 유래를 (라)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白鹿潭說話」119)에서도 백록을 탄 신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115) 金織, 「遊漢拏山記」: “謠傳群仙 飲白鹿於此 潭之得名 盖以此也.”

116) 金義正, 「漢拏山記」: “宿烟盡空 溶溶淡淡 無一點塵埃 眞別天地也 山之最高處曰西絶頂 努力攀躋 超然獨立 飄飄浩浩 不知身在何處.”

117) 崔益鉉, 「遊漢拏山記」: “清明潔淨 不涉一毫塵埃氣 隱苦有仙人種子 四圍山角 高低等均 直天府城郭.”

118) 李海朝, 「登漢拏山」: “峯凹地平大釜 列巖環擁匝雲屏 雪從太始長凝白 潭破鴻濛自漾青 月淨霜毛仙鹿飲 露溥瓊葉異花馨 想應滄海飛吟客 故斷岡巒啓玉扃



119) : 「白鹿潭說話」(지본수목화, 서울개인소장, 그림은 「학산 윤제홍의 회화

연구」(김은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에서 발췌)

(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가 저물게 되어서 바위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한 신선이 백록을 타고 내려와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는 가을연꽃이 있어 그가 곧 여동빈[呂仙]임을 알았고, 이 때문에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sup>120)</sup>

반면, 이원조는 백록담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었음을 백록담의 지형과 백두산 天池 그리고 태백산의 황지 등과 비교해 (마)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 산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 天性이 아니다. 지극히 높은 곳인데도 움푹 패여 있으니,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이루는 오묘함이다. 움푹 패여 있으므로 물을 기약하지 않지만 물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의 天池나 태백산의 潢池가 모두 이런 부류이다. 유독 이 백록담에서만 신선이나 괴이한 설로써 꾸며대는 것이 유독 심하다.<sup>121)</sup>

김상헌은 백록담의 모습을 지지에 설명된 모습과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그가 바라 본 백록담의 실제모습을 (바)와 같이 비교적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바) 정상은 함몰하여 내려앉은 것이 꼭 술과 같다. 동쪽 가에는 낮은 바윗돌들이 우뚝우뚝 서있고, ... 가운데에 두 개의 못이 있다.<sup>122)</sup> 얕은 곳은 종아리가 빠지고, 깊은 곳은 무릎까지 빠진다. ... 못의 이름은 백록담이다. 지지를 살피건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떠들면 비바람이 사납게 일어난다 하였고, ... 이는 잘못 전해진 것이다.<sup>123)</sup>

## (2) 영실기암과 오백장군<sup>124)</sup>

영실기암은 한라산의 절경을 대표하는 곳이며 영주십경<sup>125)</sup> 중 하나로 춘화, 녹

120) 尹濟弘, 「漢拏山圖」: “舊有人 值日沒 宿巖間 月下有一仙翁 騎白鹿來 飲于此肪 後有秋蓮 知其爲呂仙 由是名白鹿潭”

121) 李源祚, 「遊漢拏山記」: “山頂有水非性也 而極高則凹此陰陽之根之妙也 凹則不期水而自水故 白頭之天地 太白之潢池 皆是也 獨於是潭 必文之以仙怪之說甚 或曰 大靜之山房 挑出於此 遂窪而爲潭 不亦異歟.”

122) 백록담에 비가 내려서 만수위를 이루고 있을 때는 못이 하나로 모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어 가물어지면 백록담은 두 개의 못을 형성하게 된다.

123) 金尙憲, 「南槎錄」: “頂上陷下 如釜中 東邊則亂石磊磊 ... 中有兩潭.沈處沒膝 淺處沒脛 ... 潭名白鹿 按地誌 深不可測 人喧則 風雨暴作 ... 誤傳也.”

124) 서귀포시 하원동 산1-4번지 및 서귀포시 도순동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1년 10월 13일 국가지정 명승 제84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969,914㎡이다.

음, 단풍, 설경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모습과 울창한 수림이 어울려 빼어난 경치를 보여주는 명승지이다. 한라산 정상 남서쪽 산허리에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고,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靈山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을 靈室 또는 靈谷이라 일컫는데, 이곳에는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마치 병풍을 쳐 놓은 모습과 같은 병풍바위와 이상야릇하게 생긴 기암괴석들이 하늘로 솟아 있다.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장군’ 또는 ‘나한’ 같아 보여 붙여진 오백나한(오백장군)상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sup>126)</sup>

임제의 기록에서도 (사)와 같이 靈谷(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의 자연경관적 모습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사) 오백장군 골에 가서 구경하였다. 골은 일명 靈谷이라고 한다. 층을 이룬 봉우리가 하얗게 둘러 싸서 옥병풍을 만들었다. 세 갈래 폭포가 걸리었는데 하나의 골짜기로 쏟아진다. 옛날 壇이 있는데, 단 위에는 따로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어 단에 올라 대숲에 깔고 앉아 남쪽 바다를 굽어 살펴보니, 한결같이 萬리가 푸르다. 참으로 이 섬 중에 제일의 洞天이다. 또 기암들이 있는데, 마치 물가와 산 위에 사람처럼 서 있으며 무려 천백 개나 된다. 아마 이 때문에 이 골의 이름이 나온 듯 하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즐기다가 이어 존자암으로 돌아왔다.<sup>127)</sup>

최익현은 영실의 모습을 모두 부처의 형태로 보고 있으며, 천불암과 오백장군으로 불리고 있다고 인용하면서, 영실기암과 오백나한의 자연경관적 장엄함을 (아)와 같이 묘사하여 웅장함을 더해 주고 있다.

(아) 瀛室에 이르니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들이 웅장하게 늘어서 있는데 모두가 부처의 형태였으며 백이나 천 단위로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는 바로 千佛巖 또는 五百將軍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산남에 비교해 보면 이곳이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였다.<sup>128)</sup>

125) ①城山日出, ②영瀛丘春花, ③橘林秋色, ④산山浦釣魚, ⑤古藪牧馬, ⑥鹿潭滿雪, ⑦靈室奇岩, ⑧正房瀑布, ⑨山房窟寺, ⑩沙峰落照  
 126)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에 대한 자료는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보>를 인용했다.  
 127) 林梯, 『南溟小乘』: “往遊五百將軍洞 洞一名靈谷 層巒皎潔 環作玉屏 三道懸瀑 倒瀉於其間 有古壇 壇上有獨樹挑花 乃於壇上 藉叢竹而坐 俯視南溟 一碧萬里 眞島中第一洞天地 又有奇巖 人立於水邊山上者 無慮千百 洞之得號 想以此耶 耽賞移時 乃往尊者庵”

(3) 穴望峰

穴望峰은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한다. 즉, 이것을 한라산의 최고봉이라는 주장도 있다. 백두산의 장군봉, 설악산의 대청봉, 지리산의 천왕봉 처럼 한라산의 최고봉은 바로 혈망봉이 된다는 것이다.<sup>129)</sup> 혈망봉이라는 명칭은 김치의 「遊漢拏山記」에 처음 등장하며, 이원조의 『耽羅誌』 形勝조에는 혈망봉은 백록담 남쪽 변두리에 있으며 봉우리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 사방을 둘러볼 수 있다<sup>130)</sup>고 하여 혈망봉이 분화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 최고지점 일대를 뜻하는 봉우리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sup>131)</sup>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에도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과 함께 혈망봉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8).



<그림 8> 「大東輿地圖」에 나타난 한라산과 혈망봉

혈망봉에 대해서는 한라산 유산기에서도 백록담에서의 자연경관적 요소로 나타나는데 (자)와 같이 김치, 이형상, 이해조, 조관빈의 기록에서 그 형상과 이름

128) 崔益鉉, 「遊漢拏山記」: “至瀛室 高頂深壑 頭頭怪石 森列雄威 亦揜是佛形 其數不但以百千計焉 卽名千佛巖 亦所謂五百將軍也 較之山南 尤爲奇壯”

129) 姜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79-83쪽.

130) 李源祚, 『耽羅誌』(形勝條): “穴望峰 在白鹿南邊 峰有一窟 可以通望”

131) 姜문규, 위의 책, 2006, 81쪽.

을 지은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한낮에 비로소 산꼭대기 위에 도착하여, 혈망봉을 마주하여 앉았다. 봉우리에 하나의 구멍이 있어 가히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sup>132)</sup>

혈망봉과 마주 앉았는데 산봉우리에는 구멍이 한 개 있으며 구름과 하늘을 엿볼 수 있다.<sup>133)</sup>

산허리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남쪽바다는 이를 통해 바라 볼 수 있어서 혈망봉이라 부른다.<sup>134)</sup>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앞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하길 ‘이것이 바로 혈망봉입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sup>135)</sup>

#### (4) 자연생태

한라산은 약 2,00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식생의 寶庫’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록담 일대의 식생은 구상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시로미 등 고산생태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136)</sup>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제주목사와 대정현감 그리고 유학자들이 남긴 유산기와 다양한 詩文 속에도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한라산 유산기에 나타난 식생에 대한 관찰기록은 대부분 산을 오르내리면서 보았던 나무와 풀에 대한 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례로, 林梯는 한라산 남쪽 산기슭에서 출발하여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본 나무들에 대해 (차)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와 비슷하며 깃대와 양산 덮개모양으로 우뚝우뚝 늘어서 있는 나무”는 스님이 말한 계수나무가 아니라 구상나무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측백종류의 향기나는 등줄기는

132) 金織, 『遊漢拏山記』: “日午始到絶頂之上 坐對穴望峯 峯有一竅 可以通望故名焉.”

133) 李衡祥, 『南宦博物』: “坐對穴望峯 峯有一竅可窺雲天.”

134) 李海朝, 『登漢拏山』: “峯腰有小竅 可以通望南洋 號穴望峯.”

135) 趙觀彬, 『遊漢拏山記』: “及到絶頂 從者指前峰曰 此是穴望峰 峰有竅可通望 故名焉.”

136) 임양재 외 공저, 『한라산의 식생』,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1, 158쪽.



눈향나무로 여겨진다.

(차) 남쪽 산기슭을 취하여 올랐다. 소나무가 있는데 잣나무도 아니고 삼나무도 아니고 전나무도 아니었다. 우뚝우뚝 늘어서 있는 것이 모두 깃대와 양산 덮개모양이다. 스님은 계수나무라고 하였다. … 반리쯤 가자 풀과 나무는 전혀 없고, 蔓香(등줄기 따위에서 나오는 향기)으로 산등성이가 뒤덮여 있었는데, 이파리 모양새는 측백 종류이다. 미풍이 잠깐 일어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다.<sup>137)</sup>

이형상은 한라산의 식생대를 산림대와 왜죽대, 관목림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죽과 자단, 향목이 섞여 있다고 했다(카). 또한 영릉향, 산다, 산유, 녹각, 송목, 비자, 측백, 황백, 동백, 칠, 적률, 가지울, 상실, 이년목 등 진귀한 나무들이 있음을 기록했다. 이해조 역시 한라산의 식생에 대해 (타)와 같이 관심을 보였다.

(카) 간간이 나무가 서 있는 것은 5~6길에 되는 香木이요, 뽕뽕이 땅에 깔려 있는 것은 한자쯤 되는 綿竹이다. 향나무는 벗겨져 몸체가 하얗고 대나무는 잎이 마르고 줄기가 부러졌다. 이는 차가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 (상봉에서) 香竹 역시 뿌리를 붙지 못하였다. 혹 만향과 철쭉이 바위틈에 둘러싸여 이어져 있는데, 맑고 깨끗하여 작달막하므로 盤盆에 심은 것 같다. 모두 마땅히 제일의 妙品이다.<sup>138)</sup>

(타) 산허리 위로는 잡초목이 없고 나무가 있는데 몸은 노송나무인데 잎은 삼나무이고, 그 끝단에는 향취가 있다. … 담수가에는 흰모래가 아주 희고 깨끗하다. 총죽, 향단, 진휼, 기초가 주위를 뽕뽕이 둘러싼 것이 마치 웅단으로 자리를 깔아 놓는 것 같다.<sup>139)</sup>

이원조는 (과)와 같이 동청, 금령, 화등가, 여점실 등은 육지에서도 희귀한 품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참대와 영주실, 향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했다. 여기서 참대는 제주조릿대를 의미한다. 영실기암 절벽의 식생에 대해서도 관찰력이

137) 林悌, 「南溟小乘」: “取南麓而上 有松樹非柏非檜 童童成列 皆如撞蓋之狀 … 行到半里 絕無草樹蔓香被阪 葉類仄栢 微風乍起 異香滿袖.”  
138) 李衡祥, 「南宦博物」: “間間植立者 五六丈香木 萬里受風從古不長 密密布地者 盈尺錦竹 而香則皮剝體白 竹則葉枯莖催 是不耐風寒而死也.”  
139) 李海朝, 「登漢拏山」: “山腰以上 無一雜卉 有樹檜身杉葉 蕪之有香臭 … 潭邊白沙皎潔 叢竹香檀珍卉奇草 周包蒙密 如鋪氈席.”

뛰어나고 섬세하다.

(과) 온 땅에 참대가 가득 차 있었다. 뽕뽕하기가 방석과 같았고, 어린 것들은 잔디 마냥 앉아서 깔개로 삼을 수 있었다. 어떤 향내 나는 이파리는 작지만 줄기를 뺀어서 땅을 덮으며 바위를 엮어매고 있었는데, 열매가 검고 달았다. 영주실이라고 불렀다. 이파리를 달리어 차로 마신다. 맛이 심히 맵도록 시리다. ... (영실기암)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굵은 아름드리 밀둥 줄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키가 1척이 안 되어 보였다. 가지가 많아 땅을 덮고 있으므로 마치 방전과 같았다. 삼사월에 꽃이 처음 피기 시작하는데, 온 산이 비단 무늬에 바둑돌을 놓은 듯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죽히 사람의 눈에 속들어온다.<sup>140)</sup>

이증은 칠성대와 좌선암 주변의 식생에 대해 소나무는 없고 향나무와 주목이 철쭉 밑에서 자라고 있다고 했으며, 백록담 내에는 만향이 숲을 이루는 곳이라고 기술하였다. 김성구는 영실등람로의 식생을 오직 소나무, 주목, 단목이 서로 얽혀 그늘이 되어 비취빛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동물에 대해 이형상은 한라산에는 날거나 달리는 동물이 없고 심지어 땅강아지나 개미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이해조는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등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오직 멧돼지와 사슴 천백 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있다고 하였다.<sup>141)</sup>

#### (5) 지질 및 기후특성

한라산 정상부에 존재하는 지질과 기후특성에 대한 기록들은 임제의 기록과 김상헌, 조관빈과 이해조의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지질특성에 대하여 임제의 「남명소승」에는 “산꼭대기를 우러러보면 오히려 평지와 같은 이른바 高山이다. 봉우리 형세가 절벽과 같이 서 있으니, 보기에 솟아 나온 것 같다. 산 위의 돌들은 모두 검붉은 색깔이다. 물에 담그면 뜨니 또한 이

140) 李源祚, 「遊漢拏山記」: “滿地苦竹密 如席嗽如莎可坐而藉 有香葉小而蔓布地絡石 實黑聒名瀛州實 煎葉爲茶味甚洌 ... 崖壁被香木 骯髒偃屈 上枯下青 冬春爲雪所壓 生氣不敷 其間多躑躅 長不尺許 而多枝布地如方氈 三四月花如開 遍山如錦紋碁子 眩擷綺麗 足以媚人眼。”

141) 李海朝, 「登漢拏山」: “山無熊虎等惡獸 唯猪鹿千百爲羣”

상한 일이다”고 했다. 이 장면은 한라산 백록담을 바라본 느낌을 기술한 것으로, 화산분출로 형성된 鐘狀火山인 백록담의 외관과 함께 다양한 현무암들의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백록담 정상은 함몰하여 내려앉은 것이 꼭 술과 같으며, 동쪽 가에는 높고 낮은 바윗돌들이 우뚝우뚝 서 있다. 그리고 산꼭대기 흙 빛깔이 모두 人家에 있는 불에 탄 벽의 흙과 같다”고 했다. 화산분출로 형성된 火口湖인 백록담 모습과 검붉은 송이(scoria)로 이루어진 흙의 색깔을 기록하고 있다.

기후특성에 대해서도 임제는 “구름이 짙어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한라산을 바라보면 항상 산허리에 흰 구름이 잠겨있다. 바람과 안개가 크게 인다. 구름과 안개로 사방이 막히고 존자암 방안에 습기가 찼다. 깎아지른 골짜기는 깊이가 가히 10여 길이나 되니 천개 봉우리의 눈들이 바람에 날리어 모두 이곳으로 들어와 5월이 되어도 눈이 아직 다 녹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록담에 놀러 오면 연일 소나기가 내리는데 오늘과 같이 맑게 갠 날은 많지 않다” 등으로 기록하여 한라산의 기후가 범상치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백록담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고, 비와 안개가 자주 발생해 백록담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상헌의 기록에는 한라산에는 “5월에도 쌓인 눈이 아직 남아 있다. 일찍 추위가 오는 해는 8월에도 눈이 내리고 겨울철이 되면 눈이 안 오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늘진 골짜기와 가장 깊은 곳은 5월에도 잔설이 남아있다”고 기록하여 늦봄까지도 잔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추운 곳임을 알게 해준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산행 중 그늘과 안개가 일어나며 갑자기 비가 내리려 하다가도 산중에만 들어서면 날씨가 점점 쾌청해지는 현상을 보고 신비감을 느끼거나, 하늘이 맑아서 백록담에서 멀리 바다에 펼쳐진 섬들을 감상하다가도 갑자기 운무가 끼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기상의 변화를 조관빈과 이해조의 기록에서 보여 지는데, 변화무쌍한 한라산의 기후특성은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오히려 커다란 신비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sup>142)</sup>

142) 趙觀彬, 「遊漢拏山記」: “余乃不時促駕到山下 則陰霧忽作 驟雨欲至 同行皆勸余回轡 余謂諸人曰 安知衡嶽之雲 不開於默禱之餘耶 遂信馬而上 炊飯中山 坐移時 山內漸晴 黑霧變成白雲 低在山下 茫茫海面 鋪盡一色白錦 已令神思清適 不復一點塵想”; 李海朝, 「登漢拏山」: “時天朗無片雲 而自大小 火脫間 有白氣蓬蓬然 初如匹練橫鋪 俄頃間 奔馳周布 銀汞海變 成白玉界 向來所見 倏忽失去 泯然無一物 政似混沌未判時 向曠

## 2) 역사문화경관 인식

### (1) 제주 3읍 배치

제주의 3읍 체제는 1416년(태종 16) 제주목사겸도안무사 오식이 중앙정부에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탄생한 행정체제로, 그 결과 종래의 제주목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구분되어 효율적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143)</sup> 9진은 왜구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방어체제로, 9진에는 鎭城이 구축되었다. 진성축조는 1439년(세종 21)에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이 竹島(현재 비양도) 인근에 있는 차귀 방호소와 牛島 인근에 있는 수산방호소에 진성 축조를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sup>144)</sup> 대체로 15세기에 수산과 차귀진성, 16세기에 조천·별방·서귀·명월·애월진성, 17세기에는 동해진성이 모슬진성으로 옮겨 세워지고, 더불어 화북진성이 축조되어 마침내 9진성이 모두 완성되어 왜적방어의 임무를 수행했다.<sup>145)</sup>

조선시대 한라산을 올랐던 인물들의 유산기에는 한라산 정상에서 제주삼읍의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특히 이형상은 『남환박물』에서 (가)와 같이 백록담에 올라 바라본 三邑과 九鎭에 대해 기술하면서 濟州三邑과 九鎭이 마치 솔밭 같이 벌려있어 행정체제 및 방어체제가 안정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 三邑과 九鎭이 솔밭 같이 벌려 서서 바둑을 포석한 것 같다. … 용이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파도가 스스로 일어나는 모양을 만들어 내었으니 조물주도 또한 공교하도다. 山脈은 사방으로 뻗어서 뱀이 달리고 거북이가 웅크린 모습이다.<sup>146)</sup>

### (2) 老人星과 방암

제주도는 老人星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이가 많다고 전해져

---

風作 雲霧散亂”

143) 제주삼읍체제에서 제주목은 동쪽 종달에서 서쪽 두모에 이르는 한라산 북쪽 일대, 정의현은 시흥에서 범환에 이르는 제주의 동남부 일대, 대정현은 강정에서 고산에 이르는 제주의 서남부 일대에 해당되었다.

144) 金明徹,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邑城·鎭城과 烽燧·煙臺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0-11쪽.

145) 金明徹, 위의 논문, 2000, 65쪽.

146) 李衡祥, 「南宦博物」: “三邑皆名有城郭 鼎列碁布如 … 蜿蜿蜒蜒 自作波濤之狀 造物亦巧矣 山脈四出虎行龜盤.”

내려왔다. 노인성을 노성 또는 수성이라고 하며 서귀진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원조 목사는 1841년 가을에 자신이 직접 관측한 것을 토대로 남남동쪽에서 떠서 남남서쪽으로 지는데 고도가 지면에서 21° 정도의 높이에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심연원과 이지함이 노인성을 보았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세종때는 역관 윤사옹을 파견하여 한라산에서 관측하게 했으나 구름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sup>147)</sup>

노인성은 봄과 가을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볼 수 있었던 별이요, 長壽의 상징이었다.<sup>148)</sup> 그리하여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성에 대해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 중종조(1506~1544)까지 도교적 성격의 老人星祭가 행해졌다. 이것은 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조선 태종대까지만 해도 매해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sup>149)</sup> 犧牲은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올렸으나 제사 후 昭格殿<sup>150)</sup>에서 기르도록 했다. 노인성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임제는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노인성을 보고자 했을 것이다. 임제의 기록 이외에도 노인성은 김상헌, 윤제홍의 기록에 (나)와 같이 등장하고 있다. 충암 김정도 「제주풍토록」에서 노인성에 대하여 (다)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 세상에 전하기를, 老人星은 곧 남극 하늘에 있고, 이 산에 올라야 바라볼 수 있으며, 크기는 달의 둘레에 필적한다고 하였다. 이제 스님의 말을 들으니, 전후하여 본 바 없다 하므로, 내 하늘 가운데 걸터앉아 四海로 하여금 長壽하는 땅으로 삼고자 한다.<sup>151)</sup>

내가 이 지방의 노인에게 물으니, 남극 노인성은 오직 춘분과 추분 때에 날씨가

147) 강정호, 『한라산』, 돌베개, 2003, 167쪽.

148) 「한라일보」, 2013년 3월 1일자. 「노인성 관측하고 무병장수하세요」: 노인성(Canopus)은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어려운 신령스러운 별로 한국의 道家에서는 수천년 동안 노인성과 같은 별을 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일명 남극성이라고 불리는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믿었으며 민간에서는 노인성을 세 번 보면 백수를 누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성은 ‘壽星’, ‘南極老人星’, ‘南極星’, ‘南極壽星’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된다.

149) 송지원, 「조선시대 별에 대한 제사, 靈星祭와 老人星祭 연구」, 『奎章閣』 제3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128-132쪽.

150) 조선시대 하늘과 땅, 별에 지내는 도교의 초제(醮祭)를 알아보던 관아로, 조선 태조 때 두었으며 1430년(세조 12)에 소격서로 변동되었다.

151) 林悌, 「南溟小乘」: “世傳老人星 乃在天南極 登茲山可望 大與月輪敵 今聞長老言 前後無所觀 我欲掛之天中央坐 今四海爲壽域.”

활짝 개어야 반쯤 바라볼 수 있으며…마침 이 기회가 때를 맞추지 못하였으니 자못 한탄스럽다.<sup>152)</sup>

老人星이 대정읍 남쪽에서 나타나더니 남서쪽으로 떨어졌다. 크기가 마치 사람 얼굴 만 하다. 그래서 수명을 보는 壽觀峯이라 말한다.<sup>153)</sup>

(다) 한라산 꼭대기에 오르니 사방이 모두 푸르고 아득하다. 南極老人星이 내려다보인다. 老人星은 상서로운 별이다. 다만 한라산과 중국 중원의 남악에 올라가야만 이 별을 볼 수 있다.<sup>154)</sup>

한편 백록담 정상부에는 方巖이라는 암석이 존재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한라산 정상의 사람의 발자국이 이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그 모양이 모나고 반듯하여 사람이 파서 만든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밑에는 莎草가 길을 이루어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다<sup>155)</sup>고 하고 있다. 이원진의 『耽羅誌』에 의하면, 방암은 한라산 꼭대기에 있으며 그 형상이 네모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 같다<sup>156)</sup>고 하고 있다. 1653년 이원진 목사는 남극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유추할 수 있는 시 한수를 남겼는데, 바로 「方巖」이다. 그리고 방암에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한라산에서 노인성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여겨진다. 필자는 방암의 실체와 새겨진 명문을 찾으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1994년부터 이루어진 한라산 백록담 남벽 훼손지내 복구공사<sup>157)</sup>로 인해 백록담의 옛 모습이 일부 변형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향후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여겨진다.

152) 金尙憲, 「南槎錄」: “余問於土之故老 南極老人 惟春秋兩分天地開霽時 望見一半 … 余適未值此會 良可恨也.”

153) 尹濟弘, 「漢拏山圖」: “舊有人 值日沒 宿巖間 月下有一仙翁 騎白鹿來 飲于此肪 後有秋蓮 知其爲呂仙 由是名白鹿潭 見老人星現於大靜邑丙方 沒於丁方 大如人面 故曰 壽觀峯.”

154) 金淨, 「濟州風土錄」: “登漢拏絕頂 四顧滄溟 俯觀南極老人 (老人星 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現則仁壽之祥 唯登漢拏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 指點月出無等諸山.”

155) 『新增東國輿地勝覽』: “在漢拏山絕頂人跡不至 其形方正如人鑿成 其下藪草成路香風滿山.”

156) 이원진, 「耽羅誌」: “方巖在漢拏山絕頂 其形方正 如人鑿成.”

157) 한라산 정상 남벽은 1980년대 이후 과도한 탐방객의 답압에 의하여 식생이 훼손된 이후에 표토층이 모두 물과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유실되어 황폐지가 형성되는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데(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漢拏山 登山路 및 南壁 頂上部 毀損地 復舊設計』, 1993, 34쪽),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하였다. 주로 남벽 정상에 흩어 담긴 녹화마대를 피복하거나 새싹기 공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고정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훼손 및 복구현황」,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06, 249-274쪽).

### (3) 불교유적과 승려

한라산 유산기에 등장하는 불교유적으로는 尊者庵, 頭陀寺, 修行窟 등이 있다. 이 중 한라산 유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불교유적으로 존자암이 있다. 한라산 존자암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문헌상의 기록으로는 처음 등장하며, 탐라국시대부터 활동하여 고려시대에는 비보사찰로 조선후기까지 활동했던 사찰로, 1500년경까지도 국가에서 하사받은 논에서 나는 경비로 국성제를 행했다. 존자암의 위치는 1530년까지는 영실 수행동 오백장군 부근, 1578년 오백장군 밑 대정현 지경으로 이전되기도 했다.<sup>158)</sup>

그 동안 존자암의 존재에 대해서는 1993년 제주대학교박물관이 수행한 영실 불래오름 존자암지에 대한 조사<sup>159)</sup>로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한라산 영실 절터의 문화재 지표조사<sup>160)</sup>, 그리고 존자암에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sup>161)</sup> 한라산의 불교유적인 존자암의 가치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존자암은 한라산의 서남쪽 등람로 즉, 현재의 영실 등람로를 이용해 한라산을 올랐던 인물들이 반드시 경유했던 곳이었다. 이곳은 탐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山寺로 알려지고 있다. 존자암이 자리잡은 장소는 풍수지리상 길지에 해당하며, 존자암 근처의 골짜기에는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양을 하고 있는 修行窟이 있다. 존자암은 처음 위치에서 지금의 불래오름 기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곳은 옛날 영실 존자암이 있었던 자리에서 바깥쪽으로 약 4킬로미터 쯤 되는 대정현 지경이었다. 발견된 존자암지에서는 절터와 부도, 목탑 기대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영실의 존자암의 모습에 대해 김치의 「유한라산기」(1601)에서는 존자암이 판자집으로 되어 있고, 8~9칸 크기이며, 지붕은 띠(茅)로 덮여 있었고 사치스럽거나 더럽지도 않았다고 적고 있다.<sup>162)</sup>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찰이 頭陀寺이다. 두타사는 다른 유산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임제의 「남명소승」에만 나타나고 있는 山寺이다. 임제는 한라산 정상에 오

158)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考」, 『대각사상』 제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19-20쪽.

159) 濟州大學校博物館, 『尊者庵址』, 1993.

160) 제주고고학연구소, 「한라산 영실 절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1.

161)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에 관한 고찰」, 2011;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고」, 2012; 송문기,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권에 대한 문헌적 고찰」, 2012 등이 있다.

162) 金絳, 「遊漢拏山記」: “板屋八九間 盖以草茅 不侈不陋.”

른 후 남쪽으로 15리를 내려와서 두타사에서 1박을 하고 서귀포 지역으로 하산을 하였는데, 이 두타사를 일명 雙溪庵이라고도 하였다.<sup>163)</sup> 頭陀라는 말은 梵語 Dhuta의 音譯으로 번뇌와 의식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佛道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sup>164)</sup> 임제는 다시 남쪽으로 10리를 내려와서 또 다른 절터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도 두타사나 또 다른 절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일 사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修行窟은 한라산 서쪽 등랍로인 영실 부근에 위치한다(그림 8). 이곳에는 기암 괴석이 마치 천명의 승려가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千佛峯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백명의 장군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오백장군이 있는 영실기암이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의하면 수행굴은 20여 명이 들어갈 만하며 옛날 高僧 休糧이 들어가 살던 곳<sup>165)</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치도 수행굴을 지나며 옛날 한 도승이 살았던 무너진 온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sup>166)</sup>

한라산 유산기에는 한라산에 오르는 제주목사의 길 안내를 맡은 승려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林梯의 「남명소승」에 등장하는 존자암 승려 淸淳과 金緞의 「유한라산기」에 등장하는 승려 修淨이다. 특히 수정은 김치가 존자암에 당도했을 때 문 밖에 나와 절을 하며 절집으로 맞아들였으며, 김치의 산행에 길 안내를 맡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유생이나 관원들은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동시에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지리를 잘 아는 승려를 길 안내인으로 삼은 것처럼<sup>167)</sup> 제주도 한라산 등랍을 희망했던 관원(제주목사)이나 유생들은 존자암에 들러 숙식을 해결하거나 스님을 산행의 길잡이로 삼았음이 유산기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시대 승려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으며, 遊山이나 명승지 유람에 가마를 매거나 사찰에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 사역의 피해를 당했으며<sup>168)</sup> 이러한 상황은 제주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63) 林梯, 「南溟小乘」: “而下從上峰 南轉向頭陀寺”, “下從上峯 南轉向頭陀寺 … 寺在兩溪之間故 亦號雙溪庵 洞壑深邃亦佳境也.”

164) 임종욱, 『동양학대사전』 1, 경인문화사, 2006, 1258쪽.

165) 金尙憲, 『南槎錄』: “又過修行窟中 可容二十餘人 古有高僧休糧 入棲之處也.”

166) 金緞, 「遊漢拏山記」: “昔有道僧栖於其中 廢突至今猶存.”

167) 장현아,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승려와 사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7쪽.

168) 장현아, 위의 논문, 2003, 58쪽.



#### (4) 漢拏山神祭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행해졌던 한라산신제의 모습은 유산기에도 등장하고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漢拏山祭文>이 기록되어 있는데, 1601년(선조 34)에 선조의 명을 받아 한라산신제를 거행했다. 1601년 9월 25일 한라산 정상에 오른 김상헌과 그 일행은 밤을 무렵 제주판관 이종일, 대정현감 이신, 정의현감 이연경, 제주훈도 진위를 집사로 하여 한라산신제를 지냈다. 1601년은 제주에는 소덕유·길운절 역모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도 민심이 매우 동요하고 있었던 시기로, 김상헌은 동요하고 있던 제주도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라산신제를 거행한 것이다. 조정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한 역모사건이 한라산신에 대한 정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여 안핵사 김상헌에게 제주와 제주백성의 보전을 위하여 한라산신제를 정성스럽게 지내도록 했다.<sup>169)</sup> 한라산신제는 처음에는 백록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산신제에 참가한 주민들이 얼어 죽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조선시대인 1470년(성종 원년) 제주목사 이악동이 제단을 현재의 산천단으로 옮겼으며, 1703년(숙종 29)에는 제주목사 이형상의 건의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의 제례로 채택 되었다.

#### (5) 祈雨祭

한라산 백록담에서는 祈雨祭도 행해졌다. 이것은 제주지방의 강수량 부족으로 백성들이 가뭄피해에 시달리게 되면 행해졌다. 기우제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걸쳐 벼농사를 짓는 농민뿐만 아니라 火田民, 漁民들에 의해 행해졌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60개소 내외의 기우제 관련 명소가 올라 있다. 하천의 沼(pool)나 산봉우리, 바위, 우물 등에 마련된 제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sup>170)</sup> 김상헌과 이해조의 유산기에 “백록담 북쪽 구석에 단이 있으니 本州에서 늘 祈雨하는 곳이다,<sup>171)</sup> 백록담의 북쪽 모퉁이에 祈雨祭壇이 설치되었다<sup>172)</sup>는 기록이 이를 입증한다. 『탐라십경도』의 「백록담」에는 백록담 남쪽 가에 祈雨壇이 그려져 있

169) 아래1동주민자치위원회, 『한라산신제의 원형발굴과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보고서』, 2010, 111-112쪽.

170) 범선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가 갖는 기후 및 식생 연구 자료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25-26쪽.

171) 金尙憲, 「南槎錄」: “潭之北隅 有壇 本州常時祈雨處也.”

172) 李海朝, 「登漢拏山」: “潭之北隅 設祈雨祭壇 由大靜 有一鳥道.”

며, 이곳에서 한라산제와 기우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sup>173)</sup> 향후에 백록담내에 설치되었던 한라산제와 기우제단 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 (6) 七星台

칠성대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유적으로, 祈福·祈雨를 위한 신앙처로 알려지고 있다. 이증과 김상헌, 김치의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609년 제주관관으로 도입했던 김치의 한라산 등람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김치는 “수행동을 지나서 10여리를 가자 칠성대에 닿았다. 칠성대로부터 동쪽으로 5리쯤 가자 석벽이 깎은 듯 세워져있고 半空에 기둥처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상봉이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칠성대의 존재를 알렸다. 또한 이익태는 서쪽 산허리로 내려오면서 칠성암과 수행굴을 지났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칠성대는 영실기암 주변에 위치해 있었던 좌선암과 함께 한라산 서쪽 등람로의 주요 경로 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칠성대는 ‘선작지왓’ 초입에 있는 ‘탐궐<sup>174)</sup>’ 또는 윗세오름 대피소 부근에 있는 누운오름에 세워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한라산에 칠성대를 세운 이유는 한라산이 신선들이 사는 신령스런 공간이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sup>175)</sup>

173)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지리학연구』 제40권, 국토지리학회, 2006, 138쪽.

174) 해발 1,645m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에는 ‘탐궐’을 비롯하여 높이가 7~10m, 넓이는 15~20m, 폭이 3~5m에 이르는 암석군 10여개소가 분포한다. 한라산 화구벽에서 서쪽 초원 끝자락에 있으며 영실기암 동쪽 끝으로 전망대처럼 차곡차곡 탐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서 예전부터 ‘탐궐’라고 부르고 있다(고정군의 공저,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8, 170쪽).

175) 강문규, 앞의 책, 2006, 84-91쪽.

## V. 결 론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한라산을 올랐던 제주목사와 관리 및 문인들의 유산기록 총 13편을 토대로 한라산 등람여정과 등람관행 등을 살펴보고 한라산 정상부에 존재하는 자연경관과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관련 사료들은 제주도민이 아닌 제주에 부임해 온 관료들이나 제주도에 유배해왔던 문사들의 기록이 대부분이며, 제주도민이 직접 저술한 사료는 1편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료를 나열해 보면 16세기 문헌으로 임제의 「남명소승」이 있으며, 17세기 문헌으로는 김상헌의 『남사록』, 김치의 「유한라산기」, 이증의 『남사일록』, 김성구의 『남천록』, 이익태의 『지영록』 등 5편이다. 18세기 문헌으로는 이형상의 『남환박물』, 이해조의 「등한라산」,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등 3편이며, 19세기에는 윤제홍의 지두화인 「한라산도」의 등람기록과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최익현의 「유한라산기」, 김희정의 「한라산기」 등 4편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16세기~19세기에 작성된 한라산 유산기록들에는 공통적으로 한라산 동서남북 등람로와 등람여정 그리고 한라산 정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주변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후기 한라산의 자연환경과 제주도의 사회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한라산 유산기록 저술자의 특징과 등람배경을 보면 제주목사나 판관, 순무어사나 현감 등으로 부임해 온 인물은 김상헌, 김치, 이증, 김성구, 이익태, 이형상, 이해조, 윤제홍, 이원조 등으로 현직에 있는 관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조관빈과 최익현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인물이었으며, 임제와 김희정은 단순 여행자 신분이다. 한편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희정을 제외하면 12명 모두 제주인이 아닌 육지부에서 내려온 외지인이었다.

당시 한라산 유산자들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4명, 50대가 4명이었

으며 60대가 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술형태를 살펴보면 목민관 신분으로서 출장 후 복명서 성격의 행정업무 기록, 개인 글로서 한라산 산수유람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글이거나 제주도의 자연풍물과 환경을 기록한 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인물별 한라산 등람여정과 등람관행을 살펴보면, 등람시기로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철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었고 여름과 가을에 걸쳐 두루 올라가고 있었다. 특히 등람동기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산수유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라산신제 제관으로서의 산행, 자연풍물에 대한 체험과 기록을 위한 산행으로 나눌 수 있다. 산수유람을 위한 등람자는 임제, 김치, 이익태, 조관빈, 윤제홍, 이원조, 최익현, 김희정 등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관료 신분으로 한라산신제 제관의 자격으로 산을 오른 이는 김상헌, 이증, 김성구, 이해조 등이었다. 그리고 이형상은 한라산의 자연풍물에 대한 체험기록을 위한 산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동행인은 제주관료나 지인, 길안내를 위한 산장이나 사냥꾼 등 제주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산행하고 있었으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각 현의 현감과 관료 등을 제관으로 대동하여 산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산속에 위치한 사찰의 승려도 산길 안내자로 참여하고 있다.

숙박은 산속에 위치한 민가나 사찰에서 대부분을 묵고 있는데, 이마저도 변변치 않을 경우 산속에서 장막을 치거나 바위틈에서 추위와 싸우며 노숙으로 해결하고 있다. 더욱이 산신제를 지내기 위한 산행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백록담 화구벽 외벽 밑이나 분화구내에서 노숙을 하면서 제사 지내는 시간에 충실하려는 관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수단으로는 백록담 화구벽 가까이 산의 높은 곳까지 말을 이용하여 올라가고 있다. 말이 걷기 힘든 곳에서 남여나 보교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산의 대부분 지역을 말을 이용하여 오르고 있다. 정상 바로 밑 백록담 화구벽은 지팡이를 짚고 도보로 힘겹게 오르고 있지만 말을 타고 오르는 산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록담에 오른 이들은 분화구 내벽에 본인의 이름을 새겨 한라산에 왔다갔음을 표시하는 마애각 제명도 몇몇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조선시대 한라산의 주요 등람로를 살펴보면, 한라산 기암절경이 최고라고 알려진 대정현 지경의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을 거쳐 가는 서쪽 등람로와 제주

목 방향에서 바로 한라산으로 향하는 북쪽 등람로가 왕복도로 많이 이용되었는데, 제주목 읍성의 서문에서 출발하여 무수천을 지나 대정현 지경인 영실기암에서 오르는 서쪽 등람로를 주로 이용하였다. 이는 현재의 한라산국립공원에 개설되어 있는 영실등산로와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용했던 영실의 구등산로와 비슷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 동쪽과 남쪽 등람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라산 유산기에는 당시 한라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경관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백록담, 영실기암과 오백장군, 혈망봉, 그리고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지질 및 기후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역사문화경관 요소로는 제주 삼읍의 배치모습, 노인성과 방암, 불교유적인 존자암과 수행굴, 두타사 그리고 숙박제공과 산길안내에 동원되었던 승려, 한라산신제와 기우제, 칠성대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도 제주도민들이 한라산을 다양하게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관행, 한라산의 경관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한라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생활기록과 등람기록 등이 많이 발굴·수집되어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기를 기대해본다. 한라산 등람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조선시대 문사들이 남긴 기록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연구결과에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옛 문헌에 나타난 한라산 등람로의 특성 및 등산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산악개발사 연구, 역사지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한라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金尙憲, 『南槎錄』  
金聲久, 『南遷錄』  
金淨, 「濟州風土錄」, 『冲菴先生集』  
金緻, 「遊漢拏山記」 『耽羅志草本』(李源祚)  
金義正, 「漢拏山記」, 『海隱先生文集』  
尹濟弘, 「漢拏山圖」, 『學山九九翁』  
李源祚, 「遊漢拏山記」, 『耽羅錄』  
李瀾, 『艮翁遺稿』  
李益泰, 『知瀛錄』  
李增, 『南槎日錄』  
李海朝, 「登漢拏山」, 『鳴巖集』  
李衡祥, 『南宦博物』  
林悌, 『南溟小乘』  
趙觀彬, 「遊漢拏山記」, 『悔軒集』  
崔益鉉, 「遊漢拏山記」, 『勉庵先生文集』

### 2. 연구논저

#### 1) 자료집 및 단행본

- 강문규 외 공저,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9.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 강시영 외 공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  
본부, 2010.
- 강정효 외 공저,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한라산총서, 제주도·한라산생태문  
화연구소, 2006.
- 강정효, 『한라산』, 돌베개, 2003.
- 강창화 외 공저, 『한라산 영실 절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  
소, 2011.
- 강태진 외 공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  
연구소, 2006.
- 고정군 외 공저,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8.
- 김두봉, 『濟州島實記』, 제주문화, 2005.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도관광협회·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김일권, 『고구려 별지와 신화』, 사계절, 2008.
- 金榮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 金榮洽 編著,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 김희정 저, 백규상 번역,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 제41  
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 아리1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라산신제의 원형발굴과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보고  
서』, 2010.
- 오문복 외 공저,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 오창명,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윌리엄 조지 호스킨스 저, 이영석 역, 『잉글랜드 풍경의 형성』, 한길사, 2007.
- 이원조 저, 김찬흡 외 편역, 『耽羅誌草本(상) 춘·하』, 제주교육박물관, 2007.
- 이원진 저. 김찬흡 외 편역, 『역주 耽羅志』, 푸른역사, 2002.
- 李益泰 著. 金益洙 譯, 『知瀛錄』,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6.
- 이혜순 외 공저, 『조선 중기 遊山記 문학』, 집문당, 1997.
- 임양재·백광수·이남주, 『한라산의 식생』,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1.
- 임제 외 저, 김봉옥 역,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문화원, 2000.
- 임종욱, 『동양학대사전』 1, 경인문화사, 2006.

- 정광중 외 공저, 『한라산의 역사·유적』, 한라산총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 정광중 외 공저,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총서 제4권,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 제주도, 『濟州의 文化財』, 태화인쇄, 1998.
- 제주도, 『韓國의 靈山, 漢拏山』,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4.
-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濟州史年表 -古代~日帝時代』, 濟州道, 2005.
- 제주산악회, 『漢拏山』, 제주산악회창립20주년 특별호 통권 제10호, 화신인쇄사, 1984.
- 제주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목사료집 제1책, 제주시,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臥遊錄』,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일보, 1999.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漢拏山 登山路 및 南壁 頂上部 毀損地 復舊設計』, 1993.
- 2) 논문 및 기타
- 姜求律, 「清涼山 遊山記에 나타난 嶺南知識人の 自然認識」, 『영남학』 제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3.
-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 연구」, 『탐라문화』3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姜貞和, 「智異山 遊山記에 나타난 조선조 지식인의 山水認識」, 『南冥學研究』 제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강정호, 「나의 한라산 이야기」, 제민일보, 2013.
- 고성훈, 「1601년 제주도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史學研究』 제96호, 한국사학회, 2009.
- 고윤정, 「한라산의 마애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제12호, 제주특별



- 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13.
- 고정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훼손 및 복구현황」,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06.
- 김민정,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 김은지, 「학산 윤제홍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종구, 「遊山記에 나타난 遊山과 讀書의 상관성과 그 의미\_지리산과 청량산 遊山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5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김대현, 「20세기 無等山 遊山記 연구」, 『韓國言語文學』제46輯, 한국언어문화학회, 2001.
-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 大靜縣 鄉吏層의 身分變動」, 『사학지』 제28호, 단국대사학회, 1995.
- 김동진, 「18·19세기 濟州道の 身分構造 研究: 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金明徹, 「朝鮮時代 濟州島 關防施設의 研究-邑城·鎭城과 烽燧·煙臺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김재형,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치완, 「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인식과 그 태도」, 『大同哲學』 제59집, 2012.
- 노규호, 「한국 遊山記의 계보와 두타산 遊記의 미학」, 『우리文學研究』 28집, 우리문학회, 2009.
- 노재현,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제37호, 한국조경학회, 2009.
- 박영민, 「遊山記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호, 고려대

-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박용국, 「조선 초·중기 名山文化로서 智異山의 正體性」, 『南冥學研究』 제2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 박용국, 「초등학교 『사회 5-1』 교과서의 역사경관 고찰」, 『역사교육논집』 제47집, 역사교육학회, 2011.
- 범선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가 갖는 기후 및 식생 연구 자료적 의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 손혜리, 「조선 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제37권, 민족문화사학회, 2008.
- 송문기,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권에 대한 문헌적 고찰」, 『탐라문화』 제41집, 2012.
- 송지원, 「조선시대 별에 대한 제사, 靈星祭와 老人星祭 연구」, 『奎章閣』 제3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 신영대, 「제주문화 속의 오름\_자연풍수관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지리학연구』 제40권, 국토지리학회, 2006.
- 오주학, 「愚潭 丁時翰 『山中日記』 一考察」, 『한문학논집』 제26권, 근역한문학회, 2008.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對한 小考」, 調查研究報告書 第4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0.
- 장현아,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승려와 사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03.
- 정광중,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문화」,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06.
- 정광중 외,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33집, 제주교육대학교, 2004.

-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 정치영,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11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 정치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지리산 여행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09.
- 정치영,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된 진산의 특징」,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 崔錫起, 「조선시대 士人들의 지리산유람을 통해 본 士意識」, 『漢文學報』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고(考)」, 『대각사상』 제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 현문필, 「존자암의 창건(創建)에 관한 고찰」, 『濟州道研究』 35집, 제주학회, 2011.
- 黃萬起, 「南槎錄에 나타난 淸陰 金尙憲의 作家意識」, 『동방한문학』 36집, 동방한문학회, 2008.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Records of Hiking and Climbing Halla Mount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Ko, Yoon-Jeo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ince ancient times, Halla Mountain has been revered as a holy place with its status of being a guardian mountain. As for Baekrokdam which is the crater at the top, it has maintained its pristine beauty and mystery. Through the geographical explanations that appear about Halla Mountain and Baekrokdam in old records, these aspects of the mountain are obvious. Based on these reasons, the ancient people revered the mountain while at the same time wished to make a pilgrimage climb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cenic landscapes as well as the natural heritage that exists at the summit along with the records of climbing journeys based on a total of 13 heritage records written during the sojourn of the Jeju Governor, administrators and scholars on their hike up to Halla Mountain. The related historical records that have come under scrutiny are mostly records written by literary scholars who had been exiled to Jeju or government appointed officials and not the Jeju people. Only one record exists that was written directly by a Jeju resident. A literary

record about climbing in the 16th Century written by Yim Jae exists to this day, while 5 records written about the pleasures of hiking by Kim Sang-heon, Kim Chi, Yi Jeung, Kim Sung-gu and Yi Yick-tae in the 17th Century has been passed down. As for the 18th Century, 3 such records exist by Yi Hyeong-sang, Yi Hae-jo, and Jo Kwan-bin while in the 19th Century, a total of 4 records exist which includes a painting by Yoon Jae-hong, and 3 other records written by Yi Won-jo, Choi Yick-hyeon and Kim Hee-jung can be seen.

First, if we were to look closely a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ers of these logs, the people who were serving as Jeju administrators included Kim Sang-heon, Kim Chi, Yi Jeung, Kim Sung-gu, Yi Yick-tae, Yi Hyeong-sang, Yi Hae-jo, Yoon Jae-hong, and Yi Won-jo. Kim Hee-jung was a literary figure who was from Jeju. Yim Jae was a sojourner to Jeju while Kim Jung, Jo Kwan-bin and Choi Yick-hyun had all been exiled to Jeju. In short, other than Kim Hee-jung the sole Jejuite, the 12 other loggers were outsiders from the mainland.

If we then turn our attention to the ages of the climbers to Halla Mountain, 3 were in their 30's, 4 in their 40's, another 4 in their 50's while 2 were in their 60's. The purpose of the writing ranged from an administrative report as a governor on an official trip, a personal log about the impressions of the landscape sightseeing and introducing the natural customs and environment of Jeju.

Secondly, if we were to take a specific look at each individual's climbing log and hiking schedule, the number one motivation to climb was landscape sightseeing followed by climbing as one of the participants of the Halla Mountain Religious Ritual, and finally climbing to record the first hand experience regarding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eople who climbed for the sheer pleasure of landscape sightseeing was mostly done by Yim Jae, Yoon Jae-hong, Yi Won-jo, Choi Yick-hyun and Kim Hee-jung while the people

who climbed on official duties as the ceremonial overseer included Kim Sang-heon, Yi Jung and Yi Hae-jo. Yi Hyeong-san on the other hand, climbed mostly for the purpose to record his impressions and experiences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The people who mostly accompanied them were Jeju administrative officials, acquaintances, forest rangers or hunters and under their guide, they climbed the mountains to execute the mountain religious rite or to fulfil their missions. In addition, monks who presided in mountain temples were also part of the guide system.

As for accommodation, they usually stayed at the temple built within the mountain, but in the case where this option was not feasible, they would set up tents or slept outdoors between the rocks as shelters fighting the cold. In the case where they were climbing to hold the religious rite, they would stay at the foot of the Baekrokdam crater wall or inside the crater showing how dedicated they were in terms of spending as much as time devoting themselves to the preparation of the actual ceremony. For transportation, they usually rode horses to go as far as the high crater walls of the Baekrokdam. In places where it was difficult for horses to go, they would sometimes use palanquins. From the crater wall to the Baekrokdam summit, they would climb precariously on the footpath using hiking staffs. Judging from this, even though the height of Halla Mountain was quite high, it was made a little easier because horses were used mostly in climbing.

Thirdly, if we take a look at the main hiking routes of Halla Mount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two main routes that were used were the western route which goes via Yeongsil Rocks which has the best view of the Halla rock valley formations and the northern route which goes from the Jeju Administration Building towards Halla Mountain. However, it appears that the eastern and the southern route were also used from time to time. Judging from these facts, the climbing route that was mostly used was the western route that started off from the Jeju Government Building of Halla Mountain

towards Yeongsil and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re were a lot of differences back then from the current Yeongsil climbing route of the Halla Mountain National Park.

Fourthly, there is a plethora of information that tells us about how Halla Mountain looked at the time of these climbing adventures; Baekrokdam which comes under the category of natural scenic landscape, the 500 General Rocks and Yeongsil Rock Formation, Jwaseon Rock and Suhaeng Cave, Hyeolmang Peak as well as the awareness about the vegetation, climate and weather of Halla Mountain. In addition, the city plan of Jeju's Sam-eup (village) which comes under the category of historical cultural landscape, Jonja Rock, Suhaeng Cave and Duta Temple which comes under the category of Buddhist ruins, as well as the negative conception about monks during those days, the Canopus Star and Bangam Rock, Halla Mountain Religious Ritual and rain rituals, and finally the existence of the Big Dipper Towers all show that the Jeju residents were using Halla Mountain and being aware of it in a variety of ways even during the days of Joseon Dynasty.

This paper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uts some light on what the journey and awareness was like for the literary figures in Jeju during that time while climbing Halla Mountain by analyzing the annals written during the Joseon Dynasty. Secondly, through a closer inspection of the natural landscape of Halla Mountain 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that are mentioned in the records, there is certainly a great deal of research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give motivation to look closer at the old names and scenes of Halla Mount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n additional point, with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Halla Mountain hiking and official climbing as the basis, it is hoped that there will be more efforts made to collect daily records as well as any other records related to Halla Mountain and Jeju residents who have lived their lives with Halla Mountain as their foundation for their livelihood. One regret is that there was

a limitation in collecting the data and as a result, only a few data considered to have historical worth among the records left behind by the literary circle of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and processed for the research. More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to put more light on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worth of Halla Mountain, reinterpretation and a geohistorical approach about the climbing culture as well a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limbing route that appears in old records will have to be researched further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is particular research in the future.